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BY: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6690

판소리 교육을 위한 문학과 음악의 융합적 모형 연구

지도교수: 김 수 중

*2008*년 *7* 월 *11* 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기 경 숙

기 경 숙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정 주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수 중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상 원 인

2008 년 7월 11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차 례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3. 연구사 검토 ····· 3

Ⅱ. 판소리에 대한 교육 내용 현황 분석

1. 문학 교육 현황 ····· 6

1) 사설 풀이 위주의 교육 ····· 6

2) 소설과 결부시킨 교육 ····· 7

2. 음악 교육 현황 ····· 8

1) 민속음악과 관련한 교육 ····· 8

2) 창법 중심의 교육 ····· 9

Ⅲ. 판소리 교육의 특수성과 문제점

1. 판소리에 관한 교육 내용의 특수성 ····· 13

2. 판소리 교육의 문제점 ····· 15

1) 국어과목에서의 문제점 ····· 15

2) 음악과목에서의 문제점 ····· 16

3. 새로운 협동학습 방안 ····· 17

Ⅳ. 판소리의 융합교육을 위한 교과서 내용 분석

1. 국어과목과의 융합을 위한 음악교과서 내용 분석 ····· 20

2. 음악과목과의 융합을 위한 국어교과서 내용 분석 ····· 26

Ⅴ. 판소리 교육의 융합적 모형과 실제

1. 융합적 모형의 근거 ····· 28

2. 융합적 모형에 따른 <춘향전> 교육의 실제 30
1) <춘향전> 지도 계획 30
2) <춘향전> 교수-학습방법 30

Ⅵ. 결론 51

참고문헌 54

ABSTRACT

A Study on Interdisciplinary Modeling bridging Music with Literature for Pansori Education

Kee Kyung-sook
Advisor : Prof. Kim Su-jung, Ph.D.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When it is acceptable that Pansori is a blended genre bridging poem, song and dance, the denotation in education of Pansori must be also extended in such a way of methodological applications based on interdisciplinary teaching between Korean language and music. In this regard, this study was made to constitute the logic mentioned above under the premise that play-prone characteristics inclusive for dance be infused to the context of Korean language schoolbook.

More specifically, it was designed in an attempt to inject music lessen into Korean language lessen in a manner of closely cooperative, interdisciplinary connectivity as far as Pansori education was concerned in high schools. Summarized are the results as follows analytically evaluated from both the 7th revised music textbook and Korean language including literature in the high school;

Pansori shown in Korean language textbook emphatically consists of descriptive and percussional novel-like interpretation, while music textbook focuses on understanding of rhythmic phrases and vocalization based on sori. In spite of commonly overlapping in those two sections, it is folk song and shamanic song that are far from educational expectation because

they are categorized in folklore literature in Korean language textbook and traditional folk songs in music textbook.

The directive in Pansori education cannot set itself free from the realistic sense of practicability. There exist concerns that Pansori is likely inclined to be hackneyed traditional literature or music, not attracting students' attention, under the situation that contemporary music and literary writings are introduced reflecting wide spectrum of students' desire. Therefore, it is of outstanding importance that a coalitional way of teaching must be sought in understanding Pansori putting into action in the field.

In this context, this thesis analytically reviewed the recent researching papers approaching toward Pansori in a blended form of teaching. In consequence, there revealed many diversified models fit for applications in Korean language section. The music part was not exceptional, having practical learning contents through good command of appreciation. Based on this selected data, the study further underwent a makeover of how to converge the two interdisciplinary subjects.

<Story of Chunhyang> and/or <Song of Chunhyang> were sampled as works for Pansori education applicable for an interdisciplinary model. The study considered those two works as one object because they could be contextualized as <Story of Chunhyang> if versioned to a novel and <Song of Chunhyang> if versioned to a song. This study, principally grounded on Korean language section, constructed an interdisciplinary model based on <Story of Chunhyang> along with three-hour lessening. The duration could not be sufficient, but it was one-hour class more compared with the existent two-hour time frame by far.

The objective of the fist hour interdisciplinary teaching laid on understanding of elements configuring Pansori and functions in rhythm as well as performing of jungjungmori(a sort of rhythm and beat). The topic in this model was set as understanding through appreciation. A teacher for this class may in advance do a showcase demonstration, while making

students to appreciate the motion picture to lure their attention. He/she describes the background story and historicity of <Story of Chunhyang> and <Song of Chunhyang>, getting closer to interdisciplinary teaching class.

The objectives of the second hour interdisciplinary teaching are singing practices through appreciation and theoretical offering for better accessibility to the works. The primary target i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ansori and its line of novels, and further the theme and thought in <Story of Chunhyang>. While displaying <Love Song>, a most well-known part of <Song of Chunhyang>, the teacher spurs up students' interest and curiosity in a form of song exercises in awareness of its rhythm and tone.

The objectives of the last third hour interdisciplinary teaching are also based on tow; firstly, students are directed to sing a Pansori <Song of Chunhyang> coincident with a novel <Story of Chunhyang> in a form of inaris(descriptive speech). Secondly, the students are experienced to speak out their writings parodied during the second class in pursue of understanding various genres derived from Pansori and its associated novels together with reviewing other remade versions of <Story of Chunhyang>. Possibilities are open for discussion on films and operas as derivative genres with probability applicable to the modern genre in music. The teaching model adopted is in singing through appreciation and group discussions. Singing with appreciation is quite similar with that in the first-hour class, but distinctive in proceeding based on discussion. Preparatory tasks for speeching are distributed to each group, ending in discussion. The teacher shall monitor this class as a whole to be reflected in a course evaluation, encouraging the studen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lass, rather than one-sided lessening by the teacher.

The classes must be ideally coordinated by teachers of both Korean language and music, for example, providing teaching materials and video clips. It is meaningful for both of them to collaborate their expertise for

in-depth classes. By doing so, it is expected that the interdisciplinary teaching is prepared successfully to explicitly express outwardly the intrinsic bilateral characteristics in Pansori.

Further studies must be proceeded to seek for newer methodological teaching though this study aims at blending each peculiarity in Korean language and music sections on the basis of interdisciplinary education. It is because other Pansori works let alone this <Story of Chunhyang> can be similarly developed with an outlook that the interdisciplinary education becomes more applicable for other genres in new categories.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판소리의 성격과 예술적 가치에 관한 연구는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활발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판소리의 현대적 변용이나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급격히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판소리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서 높은 경쟁력을 소유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열두 마당에 불과한 판소리가 아무리 여러 명창들의 구연과 또 문자로 기록된 창본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판소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이 바탕이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판소리 교육은 소리 중심의 기능 교육이 점점 쇠퇴하는 현실 속에서도 중고등학교 교과 내용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에게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판소리의 역사성이나 개별 작품 연구 결과 분석, 또는 문학적 성격 등이 학문화하고 있는 반면, 예술성과 음악적 개념을 포함한 복합체로서의 교육은 오히려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국어 과목 중심의 이해 대상으로 변모해버린 판소리 교육의 방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판소리 교육이 '융합의 원리'를 실현해 가야 한다는 점을 대전제로 삼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융합의 원리란 동양의 악(樂) 개념이 제시한바 시가무(詩歌舞)에서 시(詩)는 가(歌)로 통해야 하고, 가(歌)는 무(舞)로 통해야 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1] 이런 융합의 원리가 교육 현장에서 통일되게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판소리 교육의 방향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 언어에 관한 것만을 판소리의 전체

1) 홍순일, 『판소리창본의 희극정신과 극적 아이러니』, 박이정, 2003, p.10.

로 이해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는 학습이나, 음악과 무용만을 중시하는 학습은 융합의 원리에 배치되어 판소리 교육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저해한다.

판소리는 여러 예술적 요소가 혼합되어 이루어진 복합체이다. 복합적 요소를 분석하여 교육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융합적 이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판소리라는 대상을 학습할 때 필요한 융합적 모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융합의 대상으로 문학과 음악을 들었다. '시가무의 융합'이라 한다면 '무'에 해당하는 예술로 연극과 무용이 있겠는데 판소리 교육의 경우 무용이라는 요소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거리감이 있어 제외하기로 하며, 연극성은 문학 속에 함께 다루는 방법을 사용하려 한다. 중고등학교에서 문학과 연극을 다루는 과목은 국어과로 통합되어 있고 판소리 역시 국어과목 속에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판소리 교육의 중심을 국어과에 두고 음악과목의 도움을 받아 융합적 모형으로 교육하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판소리는 열두 마당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문헌에 실려 전하는 판소리는 절반에 불과한 여섯 마당이며 현재 불리고 있는 것은 다섯에 불과하다. 비록 다섯 마당이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명성은 한국의 고전예술을 대표할 만한 중량감을 가지고 있다.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그리고 <적벽가>가 그것이다. 이들은 각종 다양한 창본을 갖고 있으며 소설로 전환되어 수많은 이본들을 보유해 놓고 있다.

7차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에는 판소리 창본이나 또는 판소리계소설로 위의 다섯 작품이 실려 있고, 판소리가 전하지 않으면서 판소리계소설로 인정받은 <장끼전>이 수록되었다. 도합 여섯 작품이 학습 대상으로 올라 있는데 특히 국어와 문학교과서에는 구비문학으로서의 판소리나 판소리 창본이 아니라 판소리계소설로서의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토끼전> 네 편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양상이다.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서 판소리는 <춘향가>를 중심으로 하여 <심청가>와 <흥보가> 일부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춘향가>의 한 대목인 <사랑가>를 선택하

여 그 안에서 선율의 흐름과 장단을 연습하도록 하였다. 이것을 <춘향가>의 여러 대목으로 파급시키도록 하고 나아가 다른 판소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춘향가>를 중심축으로 삼아 판소리 교육의 융합적 모형을 만들어 보기로 하겠다.

여기서 적용할 방법도 역시 융합적인 것이 될 것이다. 판소리에 관한 문학적 연구 이론과 음악적 이론을 취하여 연구 대상의 성격이 복합체라는 점을 뚜렷이 부각시키려 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가 교육 현장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으므로 국어와 음악 교과의 통합 학습 지도 방안에 관한 방법론을 세우고, 이에 따라 학습자 활동 중심의 모형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할 것이다. 국어와 음악 간의 통합에 있어 중심으로 삼은 교과는 국어이다. 지금까지 판소리 교육의 중심 교과목이 국어과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의 성과 역시 단연 뛰어난 까닭이다. 그러나 국어 교과의 일방적 교육으로 완수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융합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목적 때문에 음악 교과의 내용은 부수적 보충 차원이 아니라 과목 간의 통합적 원리에 의한 독자적 영역의 결합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 두고자 한다.

3. 연구사 검토

판소리와 판소리계소설에 관한 문학적, 음악적 연구사는 여기서 논급하지 않기로 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직접적 관련이 있다기보다 간접적 연관성으로 이해해야 할 업적들이며, 특히 문학적 성과는 양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것들이 나와 있다. 지금도 판소리의 성립에서부터 변모 양상을 거쳐 현대적 변용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검토해야 할 선행 연구는 판소리 교육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협동학습에 관한 논문들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협동학습 중에서도 판소리 자체가 갖는 학습 방안 연구들이 있고, 판소리를 포함한 교과 통합 지도 방안이 있다. 이 두 가지 방향에 각각 심층적으로 접근한 연구논문들이 있었다.

김인영[2)]의 연구가 판소리 교육의 협동학습 방안을 모형으로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논문은 판소리계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학습자 중심 활동에 능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네 가지 학습 모형을 보여준다. <춘향전> 교육에서 Jigsaw 협동학습 모형의 적용을 시작으로 <흥부전>, <심청전>, <토끼전>에서 각각 CIRC 모형, PRO-CON 모형, 짝 점검 모형 활용을 시도한다. 이 연구는 판소리 교육의 복합성이 협동을 통해 생동감 있게 적용되는 결과를 얻었다. 판소리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문학성의 기반과 흐름을 세밀하게 밝히고 그것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학습자 활동 중심의 모형으로 이끌어낸 것은 고전 장르와 현대적 학습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가치성을 충분히 담고 있다. 그러나 김인영의 연구는 판소리계소설 교육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본고가 추구하고자 하는 음악 교육과의 융합성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

판소리의 학습 지도 방법을 국어과목의 입장에서 고찰한 최근의 연구들로서 김정일[3], 김인아[4], 강재홍[5], 손민경[6]의 논문들이 있다. 판소리계소설의 교수-학습 지도에 관한 방안들을 제시하며 활동 모형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어 놓았다. 필자에 따라 단계별 학습 방법, 이해 활동과 표현 활동 중심의 학습 방법, 소규모 협동학습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강재홍은 <흥부전>을 대상으로 삼았고, 손민경은 <춘향전>에 국한하는 작품 교육론이어서 일반적 적용의 적절성 여부가 과제로 남는다.

또한 연극적 방식을 지향한 연구가 있어 문학 지도의 범위를 넓힌 것도 관심을 끌게 한다. 판소리 교육에 융합적 성과를 가져오고 문학과 연극을 포괄하는 방법론의 제시가 기대되었다. 박윤지[7]의 연구가 이런 방향을 보여주었다. 시대의 추이에 따라 멀티미디어의 다양한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류정림[8]의 논문도 시의적절한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위의 두 논문도 역시 <춘향전>과 <토끼전>을 각각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다.

---

2) 김인영, 「판소리계소설 교육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3) 김정일, 「판소리 감상 학습을 위한 수업 모형 연구 : 국어교과서의 판소리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4) 김인아, 「중등학교 판소리계소설의 수용양상과 교수-학습 지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5) 강재홍, 「이본 생성 원리를 활용한 <흥부전> 교수-학습 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6) 손민경,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춘향전>의 교육내용과 소규모 학습 방안 연구: 7차 국어 · 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7) 박윤지, 「교육 연극적 방법을 활용한 판소리계소설 지도 방안 연구 : <춘향전>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8) 류정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토끼전> 교수 방안」,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판소리와 판소리계소설, 그리고 한국 고전문학 작품들을 교육 현장과 관련성을 갖고 교육적 시각에서 바라본 단행본으로 정병헌[9]의 저술을 들 수 있다. 본고와 연관된 주제는 「<춘향전> 교육의 현실과 당위」, 「판소리계소설의 형성과 전개」라는 글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교육 현장에서 고전의 근원적 바탕을 제시해야 한다는 필자의 요구와 주장을 만나게 된다. 그것이 작품 읽기의 전제조건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논리를 상세하게 제공하였다.

교과 통합 지도 방안으로서 판소리를 포함한 연구로 강윤경[10]의 논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음악 교육을 중심으로 한 입장에서 국어 교과와의 통합 수업 프로그램 개요를 짜고 있다. 판소리와 판소리계소설은 여섯 가지의 통합 주제안에 들어 있고, 이것을 드러내어 3차시에 걸친 세부적 통합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국어과목 수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융합 모형이기 때문에 관점은 다르지만 요긴하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음악을 중심으로 삼은 통합 수업에 관하여 김현규[11], 강상미[12]의 연구를 찾을 수 있다. 김현규의 연구는 음악과 국어의 통합 학습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가지만 적용 대상이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 강상미의 연구는 음악극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조와 봉산탈춤을 대상으로 삼았다. 본고의 연구 대상이 판소리임에 비추어 볼 때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탈춤과 판소리가 구비문학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과, 시조와 판소리계소설은 조선시대를 대표할 만한 고전문학 장르들이라는 점에서 친근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위의 연구 내용들은 대부분 7차 교육과정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는 학습자 중심 활동을 의식하면서 고안된 것들이며, 더불어 학습 및 학습자의 인격적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이런 개념들의 이해를 통해 판소리의 융합성이 교육 활동에서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

9) 정병헌, 『한국 고전문학의 교육적 성찰』,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3.
10) 강윤경, 「고등학교 음악 교과와 국어 교과의 통합 학습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1) 김현규, 「포가티(Fogarty)의 계열형 모형에 의한 음악-국어 통합 학습 지도 방안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2) 강상미, 「시조와 봉산탈춤으로 음악극을 만드는 음악 통합 수업 프로그램 개발 : 국사 · 문학과의 내용과 관련지어」,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6.

Ⅱ. 판소리에 대한 교육 내용 현황 분석

1. 문학 교육 현황

1) 사설 풀이 위주의 교육

판소리와 관련한 국어과목 교과서에서는 국정교과서에 <춘향전> 하나, 그리고 17종 문학교과서에 각각 한 편 이상의 작품이 실려 있다. 작품에 따라 수록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먼저 판소리의 창본이나 사설 기록을 위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설 장르로 전환한 것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 분간할 필요가 생긴다.

<춘향가> 계통은 국정교과서를 포함하여 일곱 차례에 걸쳐 교과서에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소설 <춘향전>의 인용이며 완판본이 그 대상으로 선택되었다. 판소리 사설을 수록한 경우는 없다. 이는 <흥보가> 계통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흥보가> 관련 단원은 열두 번 등장하고 있는 중에 소설 <흥부전> 인용은 한 교과서뿐이고 나머지 열한 번은 판소리 창본이나 사설 위주의 수록으로 되어 있다. 신재효본 <박타령>을 비롯하여 박봉술, 박녹주, 김연수 창본의 <흥보가> 또는 <박타령>이 실렸다. <춘향전>은 문학교육 텍스트로서 소설이 적절하지만 <흥부전>의 경우 소설화 되지 않고 판소리 상태로 불리는 <흥보가>나 <박타령>이 더 낫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흥부전>의 판소리 창본들이 교육적 가치와 흥미 부여라는 측면에서 소설보다 더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진다.[13] 어떤 형태가 작품의 교육성에 더 합당한 면모를 띠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심청가>나 <수궁가>는 그런 점에서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 이들 양쪽이 모두 교육적 자료가 되기에 문제가 없음을 나타낸다. <심청가> 창본은 세 번, 소설 <심청전>은 두 번이다. <수궁가>의 경우는 창본 두 번, 소설 <토끼전>이 한 번 수록되었다. 그밖에 <적벽가>는 판소리 창본으로 한 번, <장끼전>은 소설로 두 번

13) 김인영, 앞의 논문, p.16.

실렸다. <장끼전>의 경우 판소리 창본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소설로밖에 만나볼 수 없다. 전반적으로 소설이라는 기록문학 장르로 수록된 것보다 원형에 가까운 창본으로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겠다.

이런 입장에서 국어 교육의 판소리 학습은 사설 풀이 위주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구전되어 오던 것을 기록한 창본에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설이 많고, 어려운 한자나 고어들이 등장하지만 그것이 잘못 전승되어 온 경우도 허다하다. 물론 명창들의 창본을 수록하여 전승의 오류를 바로잡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전통적 해석과 다른 해설을 찾고 소개하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 과정에서 학습 흥미가 떨어지고 사설의 내용 풀이나 어법 강의 위주로 변하게 될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로 더욱 문학적으로 정제된 소설을 수록함으로써 예술성을 높이고 수업의 효과를 더 고조시킨 것은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설을 풀어 나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문학적 수업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도가 작용한 것도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판소리 사설을 풀이 위주로 학습하는 방식을 바꾸어 음악과의 융합을 통한 교육 방식을 취한다면 더욱 능률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사설 풀이와 더불어 판소리 속에 나타나는 시가를 이해하는 학습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판소리가 예술 장르로 정립함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음악과 관련되는 시가와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14] 그러나 단순히 시가의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 그치고 마는 것은 역시 의미가 없다. 판소리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래인 창은 장단과 창조가 결합된 음악이라는 점을 확연히 염두에 두고 이에 따른 교육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음악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민요를 이해하고 교육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15] 사설 풀이의 방식을 음악 교육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 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

14) 정병헌, 『판소리와 한국 문화』, 역락, 2002, p.68.

15) <춘향가>에 차용된 기존 가요의 장르는 시조에서 12편, 십이 가사(十二歌詞)에서 8편, 잡가에서 13편, 가면극에서 21편, 민요에서 20편, 무가에서 18편, 다른 판소리에서 형성된 가요가 26편으로 조사되었다. 전경욱, 『<춘향전> 사설 형성 원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p.40.

2) 소설과 결부시킨 교육

구비문학은 민중에 의해 구연되면서 비속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문학 외적인 취급을 받아왔다. 그것이 문자로 정착되면서 문제된 부분들이 상당히 정리되고 세련미를 얻게 되어 향유층에 만족감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의식의 반영이 국어 교과의 학습 현장에 흐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판소리 창본보다는 소설로서 읽고 생각하고 분석하는 태도의 교육 방법이 현장에서 더 세력을 얻게 되었다. 학생들은 판소리를 대하며 일단 주제, 구성, 문체를 생각하게 되고 그 방식에 맞추어 학습하다 보니 결국 판소리의 구조가 엉성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가치를 폄하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판소리 학습을 소설과 결부시켜 소설 작품 일변도의 문학 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물론 소설 읽기 방법의 다양성을 수업에 적용하는 것에 관한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예측하며 읽는 수업 방법의 흥미성이라든지 적극적 창의성 등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16] 판소리 전체를 소설 교육의 방식으로만 이해하는 태도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완의 방법을 마련할 방안을 다음 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판소리의 문학 교육을 희곡에 결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희곡 교육과의 관련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판소리 창본의 희곡적 성격은 현재의 명령형으로 재현하고, 인간과 인간의 갈등을 일인칭 시점으로 대화하게 하거나 대화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설자를 통해 등장인물의 정서와 의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17] 판소리의 장르적 특성이 희곡과 가장 가깝다는 논리를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융합적 원리를 구현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희곡 장르의 문학적 성격을 판소리 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16) 김수정, 「고전소설 교육에서 예측하며 읽기 : <토끼전> 이본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17) 홍순일, 앞의 책, p.99.

2. 음악 교육 현황

1) 민속음악과 관련한 교육

판소리는 광대, 그 중에서도 무가(巫歌)를 부르는 사람들의 집단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거의 정설로 되어있다. 판소리는 무가의 장단이나 발성법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무가에서 판소리가 나왔다고 하는 학설이 음악 교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민요와 무가 같은 민속음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어 교육에 반영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음악성을 갖고 접근하는 판소리는 판소리 문학과 엄연히 다른 것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18] 판소리는 악보가 없는 음악이다. 음악 교육에서는 악보를 제시하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악보 없는 음악을 가르치는 것에 당혹감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육적 가치를 낮게 평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판소리는 판소리다운 특성을 지니게 되므로 그 성격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판소리 교육의 올바른 길이다.

문학의 경우 글자에 의존하지 않고 기억에 의해 구연하는 문학을 가리켜 구비문학이라고 부른다. 구비문학은 다른 명칭으로 민속문학이라 한다. 문학으로서의 판소리는 여기에 속한다. 아울러 음악으로서의 판소리는 악보에 의존하지 않고 연주하는 민속음악에 해당된다. 당연히 전승된 기억에 따라 집단적으로 연주되는 음악의 성격을 파악하는 노력이 작용해야 할 것이다.

민속음악의 집단적 성격은 공동작이라는 점에 기반을 둔다. 일반 음악 작품들이 개인적 능력의 결과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민속음악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동의 집단성을 띤다. 민속음악은 구전되는 과정에서 갈고 닦여서 남은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작자를 알 수 없으며, 작가의 예술성을 기대하는 대신 집단의 정서 표현을 가치로 내세운다. 판소리를 교육할 때 민속음악의 가치를 강조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민속음악은 계속성, 변이, 사회에 의한 선택이라고 하는 세 가지 본질적 속성을 갖는다.[19]

계속성(continuity)이라고 하는 것은 민속음악의 전통과 접맥되는 성격이다. 꼭 어

18) 최동현, 『판소리이야기』, 도서출판 작가, 2004, p.40.
19) 위의 책, p.45.

느 때부터라고 말할 수 없는 전승이 오래 시간에 걸쳐 이어지며 음악으로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판소리는 근대 초기에 발생된 예술이므로 다른 민속음악에 비해 계속성이 짧은 편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음악적 계속성에 따른 전승계보가 만들어져 '제'와 '바디'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이는 소리의 특성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음악교육의 방향에서 다루어 왔던 것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라는 명칭들이 그것이다. '제'가 수많은 창우들에 의해 계승 변모되고 이 변모된 특성을 지닌 소리 경향을 '바디'라 부른다. 영화 <서편제>의 대대적인 흥행 이후 '제'와 '바디'에 관한 교육적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

변이(variation)란 민속음악의 창조성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판소리의 경우 창우들은 애초에 배웠던 노래를 반복해 부르지만 그때마다 똑같을 수는 없다. 더 나은 것으로 바꾸어가는 노래의 변화과정을 거듭한다. 특히 다른 창우들과는 다른 독창성으로 자신의 노래를 완성시켜 나아가는 것이다. 새로운 변이를 일으켜 청중의 관심을 모으게 되면 판소리 창우로서의 입지가 강화되고 명창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학습효과를 이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판소리의 '더늠'은 변이의 성공사례이며 음악성의 발전을 증명하는 작품들이다. 한사람의 판소리 창우가 특별히 잘 부르는 노래를 '더늠'이라 한다. 원래의 노래에 '더 넣음'을 하여 잘 변이된 작품을 만든 것이다. 음악 교육에서 창조적 방법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요소이다.

선택(selection)은 사회에 의한 선택일 뿐 아니라 민중에 의한 선택을 가리킨다. 선택이라는 이 요소에 의하여 민속음악은 살아남게 되는 것이고, 판소리 역시 생명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열두 마당이었던 판소리가 현재 다섯 마당으로 줄어진 것은 나머지 것들을 민중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판소리 전체가 음악 교육에서 침체되어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사회 구성원의 선택에서 판소리가 외면을 받게 된 증거라고 보아야 한다. 선택을 회복하기 위한 민속음악과 판소리의 일대 변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창법 중심의 교육

판소리 창법과 관련된 현실은 교육적으로 큰 난점이 있다. 판소리는 성음(聲音)을 즐기는 예술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목쉰 소리의 창법을 요구한다. 목이 쉬었다고 해서 거칠고 탁한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맑음과 부드러움을 드러내야

한다. 여기에 창법 교육의 어려움이 따른다.

판소리의 기초발성법은 단전호흡을 실시하는 데서 시작된다. 판소리의 성음이 단전에서 생기는 것을 알게 하고 발성을 위한 자세와 호흡방법을 가르친다. 일반적 성악의 발성연습과는 다른 발성법에 대한 교육방법이 요청된다. 성음법의 터득을 위하여 양성과 음성을 구분지어 연습할 필요가 있는데 교사는 이러한 창법에 관하여 사전 이해와 준비가 있어야 한다.

창법에서 '조(調)'의 개념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습지도 방식으로 단순히 '조'의 종류만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구체적인 느낌을 얻을 수 있도록 판소리 창법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판소리에서 '조'는 선법(旋法)적 개념과 악상, 곧 창법적 개념으로 계면조, 평조, 우조가 있다.[20] 계면조는 슬픔과 애통을 드러내기 위해 처량하게 부르는 창법이고, 평조는 화평함과 한가함을 표현하는 창법이며, 우조는 호방하고 힘찬 느낌을 주는 창법이다. 판소리 교육에서 감정의 흐름과 변화를 이해시키기 위해 이것을 구분지어 이해하는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판소리의 장단 학습이다. 일반적으로 고수가 북으로 반주하여 장단을 맞추는 것이 손쉬운 일로 보이지만 결코 손쉬운 일이 아니다. '장단(長短)'이라는 용어는 서양음악에서의 단순한 '박자' 개념과는 다르며 같은 사설이라도 장단에 따라 표출되는 감정이 다르다.[21] 그러므로 4분의 2박자나 3박자, 혹은 4박자의 형식과 개념과는 다르게 교육할 필요가 생긴다. 전체의 장단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등이 있다. 가장 느리고 유장한 진양조에서 점점 빨라져 상황의 긴박감을 알리는 휘모리까지 나아가는데 이것을 구분하여 창법을 터득하는 교육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끝으로 추임새와 아니리 및 발림에 관한 것도 음악 교육의 한 방편으로 제시되어 학생들의 이해를 요구한다. 추임새는 '잘한다고 추켜세우다'는 의미에서 나온 용어로서 판소리 구연에 공감했을 때 사용된다. "얼쑤, 잘 한다", "아먼, 그렇지" 등의 소리를 내는 것인데 일정한 형식이 없다. 아니리는 창우가 소리를 하다가 한 대목에서 다른 대목으로 넘어갈 때 사용하는 자유 리듬의 사설이다. 소리로 하기 어려운 긴 사연을 이것으로 대신한다. 소리가 청중을 울게 한다면 아니리는 청중을 웃

20) 국립국악원 편, 『명창을 알면 판소리가 보인다』, 국립국악원, 2005, pp,42~44.
21) 진봉규, 『판소리 -이론과 실제-』, 수서원, 1995, p,62.

게 한다.[22] 이 부분은 음악보다 문학적인 측면이 강조된 대목들이지만 소리를 엮어 가는 고리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음악 교육의 관심을 끄는 영역이다. 발림은 창우가 소리의 내용에 따라 손발을 움직여 감정을 표현하는 몸짓을 말한다. '너름새' 라고도 한다. 이는 음악 교육과 관련이 없는 듯 보이지만 발림의 유연성과 박자 관념이 없이는 비효과적 학습이 되기 때문에 도외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22) 이혜구· 임미선, 『한국음악이론』, 민속원, 2007, p, 264.

Ⅲ. 판소리 교육의 특수성과 문제점

1. 판소리에 관한 교육 내용의 특수성

판소리의 교육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맨 먼저 확인해야 할 일은 판소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정착되었으며 그 성격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얻는 것이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판소리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항상 두 가지로 나뉜다. 제각기 다른 답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성격이 결합된 것이라고 나누어 대답한다는 뜻이다. 그 두 가지는 크게 보아 문학과 음악이다. 판소리라는 말은 국악의 악곡 명칭이면서 구비문학의 장르 명칭이기도 하다.[23] 그 기원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학설이 나와 있으나 전라도 무속을 배경으로 한 무가와의 관련설이 유력하게 대두되는 것을 볼 때, 내용의 문학적 검토와 함께 무악(巫樂)의 곡조에 관한 이해가 요구된다.

판소리 작품의 숫자는 열두 마당으로서 비록 양적인 면에서는 보잘것없지만 질적으로 지속적인 예술적 세련화를 이루어 왔다. 숙종 말기나 영조 초기에 해당하는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반 무렵에 판소리가 처음 발생했으므로 비교적 단기간 동안에 유파가 성립되고 사설이 정리되어 갔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음악적으로는 산조가 나타나고, 문학적으로는 판소리계소설이 성립되었다. '말 없는 판소리'라 불리는 산조는 청중의 참여가 배제된 채 연주자의 기교만으로 판이 이루어지는 음악으로의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24] 문학과 음악의 융합이 극단의 위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문학과 음악 양쪽에서 모두 이런 중요한 교육 과제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융합적 원리를 찾아 교육하는 방법은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대신 국어 교과에서 판소리

---

23) 장덕순 외 3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p.146.
24) 정병헌, 앞의 책, pp.398~399.

교육 전체를 담당하다시피 하게 되었다. 고전 교육과 소설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감에 따라 <춘향전>을 비롯한 판소리계소설 교육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여러 방법론들을 적용시키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파생되는 문제란 판소리 자체가 아니라 판소리계소설 교육 방법으로 판소리 전체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데 따른 비융합적 결과를 드러내게 되었다는 점이다. 판소리라고 하면 으레 소설로만 이해하려 드는 교육적 결과가 나타나고 만 것이다.

판소리계소설을 학습 대상으로 삼을 경우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이 축약된다. 우선 판소리계소설을 고전문학의 중심에 서게 한 동력을 밝혀야 하며, 작품들 자체의 구조와 의미를 알아야 하고, 등장인물이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판소리는 그저 단순하게 소설의 과정으로 변화하고 판소리 자체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보아 작자 연구는 불필요한지, 판소리 열두 마당은 모두 소설이 되어 문학적 가치를 발휘했는지 살피는 일은 하나같이 중요하다.[25] 이런 문학 연구의 노력과 성과들이 계속되어 갈수록 판소리는 문학으로만 인식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반면 음악 교육은 국악 부문의 불균형적 배치와 무관심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음악 교육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도 근본적으로 음악학에서의 판소리 연구 부진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악학도들에게 판소리는 다루기 어려운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로는 방대한 자료와 양, 적층되고 교묘히 다듬어진 음악적 양상, 구비전승 되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즉흥성과 개인성의 다양함,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 등을 꼽는다. 거기에다가 일차적으로 채보를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26] 연구 상황이 활발하지 못함으로 인해 교육적 목적에 도달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당했고, 국악 분야의 교육에 빈곤을 겪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실증하는 사례로서, 현행 고등학교 음악 8종 교과서에 나타난 판소리 관련 활동은 매우 간략하며 단편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판소리, 단가, 창극의 특성을 글로 써 보자”(태성교과서), “<춘향가>의 쑥대머리 대목의 가사 내용과 용어 해설”(박영사), “판소리 <춘향가>의 공연을 감상하고 감상문을 써서 발표해 보자”(천재교육) 등의 활동에 그치는 정도이다. 국어 교과와 관련을 맺는 부분은 용어 해설이

25) 김수중, 『고전소설과 문학정신』, 태학사, 2007. p.114.
26) 김혜정, 「음악학에서의 판소리 연구 현황과 과제」, 『민속음악자료집』 제2집, 국립민속국악원, 2002, p.205.

나 감상문을 요구하는 정도의 수업 내용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긴밀한 융합의 원리에 따른 통합 수업이 필요함을 알게 하는 현상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판소리의 교육적 성격은 특수성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판소리는 성립부터 현재의 교육 내용과 방법까지 융합의 원리를 실현해야 하는 특수한 배경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와 음악으로 나누어진 판소리 교육에는 제각기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2. 판소리 교육의 문제점

1) 국어과목에서의 문제점

국정교과서로 간행된 고등학교 『국어(하)』에는 판소리계소설 <춘향전>이 실려 있고, 선택형 교육과정의 문학교과서 18종에서 절대 다수인 17종이 판소리 창본이나 판소리계소설을 수록하고 있다. 판소리 계통의 예술에 쏟는 배려가 대단히 크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국정교과서에는 <춘향전> 한 편만 실린 것에 그쳤다 하더라도 문학교과서에는 다른 판소리 작품들이 고루 수록되었다.

엄격히 말하면 판소리 <춘향가> 하나로써 판소리의 발생과 발전을 핵심적으로 꿰뚫을 수 있다. 영조 30년인 1754년에 나온 것으로 확인된 유진한(柳振漢)의 문집 『만화집(晩華集)』에 <가사 춘향가 이백구(歌詞 春香歌 二百句)>가 실려 최초의 판소리 모습과 실상을 알렸다. 비록 한역본이지만 판소리의 존재를 <춘향가>를 통해 세상에 보여준 것이다. 당연히 <춘향가>가 판소리의 대표자 격이 되었는데, 그 증거는 거의 한 세기 뒤인 1843년에 펴냈다고 보는 송만재(宋晩載)의 한시 <관우희(觀優戱)>에서 확실하게 나타난다. 거기에는 판소리의 공연 배경과 함께 <춘향가>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나머지 작품의 평가를 절하했다.[27] 이런 점을 교육 내용에 반영시켜 국어 과목에서는 <춘향가>나 <춘향전>을 집중 학습하도록 이끌고 있다.

여기에서 <춘향전>에 대한 이해 중심의 국어 학습이 전개된다. 춘향을 이해하도록 하면서 다양한 해석과 그 지향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춘향이라는 인물을 통

27) 윤광봉, 『개정 한국연희시연구』, 박이정, 1997, p.132.

해 선인들의 문학적 기반, 해학과 풍류, 시대상을 알게 해 준다. 그러나 이런 이해 중심의 교육은 춘향을 열녀라는 전형적 모델로 만들어 놓은 데서 머무르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반성의 기운이 일어나게 하는 시기를 거쳤다.

고전 수업이라고 해서 전통적 가치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목표를 삼을 수는 없다. 특히 판소리 계통의 예술은 민중들의 삶과 현실 감각을 외면해서는 진리를 발견하는 작업이 불가능하다. 춘향의 근원적 바탕을 제시하고 해명하면서 다양한 세계로 변용시켜 가는 노력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 있다. 춘향뿐만 아니라 심청과 흥부, 그리고 의인화된 주인공 토끼와 자라들의 행위를 이해하는 방법이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으로 완성될 수는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판소리는 고정되거나 완결된 형태가 아니라 지금도 민중 속에서 소리로 재현되고 있는 현장의 예술임을 깨닫게 하는 학습 모형들이 개발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판소리를 단순한 이해 차원에서 가르치던 국어과목은 이제 유용한 협동학습과 통합교육의 시도를 통해 새로운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음악과목에서의 문제점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음악과목에서의 판소리 관련 부분은 매우 간략하며 단편적이다. 우선 판소리 연구에서 음악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초기의 연구는 판소리의 특별한 조, 곧 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가 아니라 극적인 한두 대목에서 사용되는 조의 음악적 특징 분석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경드름, 메나리조 같은 특수한 것들의 연구가 그것이다.[28] 막상 산조가 가지고 있는 우조와 계면조 같은 연구는 그 뒤에 걸쳐 이루어졌다. 판소리 악조에 관해 처음 논의를 제기했던 이보형은 이 문제에 관하여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개념을 정리할 정도로 이론의 정비가 느렸다.[29] 신중함일 수도 있겠고 악조 논의의 어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판소리 자체의 음악성이 지닌 독특함으로 인해 연구의 진보가 더딘 걸음을

---

28) 이보형, 「판소리 경드름에 관한 연구」, 『서낭당』 제1집, 한국민속예술연구소, 1971.
_____, 「메나리조」, 『한국음악연구』 제2집, 한국국악학회, 1972.

29) 한만영, 「판소리의 우조」, 『한국움악연구』 제2집, 한국국악학회, 1972.
백대웅, 「판소리에 있어서 우조, 평조, 계면조」, 『한국음악연구』 제8·9집 합병호, 한국국악학회, 1979.
이보형, 「판소리와 산조에서 우조와 평조의 개념수용에 관한 고찰」, 『국악원논문집』 제10집, 국립국악원, 1998.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연히 교육 현장에도 이런 경향이 반영되어 판소리의 새로운 학습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음악과목에서의 판소리 교육은 감상 학습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감상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춘향가>를 비롯한 판소리를 감상하는 과제를 부과하고 그에 대한 감상문을 발표하는 수준이 일반적이었다. 적극적인 학습을 실행할 경우, 교사의 북장단으로 짤막한 창을 함께 부르는 활동을 수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대부분 서양음악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전통음악에 관해서 실음의 범주와 범창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교사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다. 각 시도 교육청의 연수원이나 국립국악원에서 실시하는 60시간의 전통음악 연수과정을 이수했다고 할지라도 교사들이 판소리와 같은 고도로 세련된 발성과 창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교육 현실에서 '가창과 감상 위주의 음악 교과의 판소리 학습을 통하여 판소리의 특징을 감지시킬 수 있고, 판소리의 구성요소를 이해시킴과 동시에 구성요소를 살려 직접 표현시켜 봄으로써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느끼며 전통음악에 대한 흥미와 애착심을 고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제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더 나아가 '판소리 주요 대목의 감상을 통하여 효도, 우애, 보은, 신의, 사랑 등의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가'라는 명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도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에는 현재와 미래의 음악을 재창출하기 위한 발전책으로서 새로운 대중화 및 국제화를 이루고 이것을 교육 방향으로 설정하자는 움직임도 나와 있다.[30] 판소리는 세계의 보편적인 음악적 내용인 길(멜로디), 장단(리듬), 성음(음색), 음기능(화성) 등 세계적 보편성과 함께 한국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 아래 판소리의 악보화, 새로운 판소리 창작, 판소리의 디지털화(오디오 데이터화)를 주창하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이 정리되어 고등학교 음악 교육을 다양하게 만들고 융합의 길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융합적 학습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30) 최상화, 「소리의 예술성과 상품화」, 『판소리 보전과 향유』 남도문화예술진흥회, 2004, p.164.

3. 새로운 협동학습 방안

국어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협동학습 방안이 제시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이다. 경쟁학습이나 개별학습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면서도 여러 학생들이 함께 활동하며 공통된 학습목표를 지향한다. 이런 협동학습의 이론이 국어과목에 적용되어 연구 실천되어 왔지만 판소리 교육에서 방법을 탐색한 것은 최근에 발표된 김인영의 논문이 수확이라 할 수 있다.

김인영은 네 가지 협동학습 방법을 탐색하여 판소리 교육에 적용시켰는데, 대표적인 판소리계소설 작품으로 지도 적용에 가장 장점이 많다고 예측되는 방안을 모형으로 만들었다.[31] 네 개의 협동학습 모형은 직소(Jigsaw, 조각 맞추기) 모형, 읽기와 쓰기 통합학습(CIRC) 모형, 찬반 논쟁 협동학습(PRO-CON) 모형, 짝 점검(Dyads) 모형 등이다. Jigsaw 모형은 많은 수업의 양을 학생들이 각자 분담해서 학습하므로 양적 능률을 올릴 수 있고, 모둠 보상을 부여해서 개인의 책임을 더욱 강조한 JigsawII 모형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어 협동학습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Jigsaw 협동학습이므로 판소리계소설 교육에 활용해 보기에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판소리계소설 단원은 고전교육에 속하기 때문에 고전이 갖는 정형적 특징으로 인하여 준비하지 않은 학생이 즉흥적으로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운 반면, 준비한 학생은 민간의 삶과 관계있는 실용적 흥미로 인해 대부분 활발한 참여를 보이게 되므로 준비 여부에 의한 간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모둠원들 사이에 협조를 안 하는 모둠원이 있을 경우 자신의 점수에 영향을 주므로 서로 원망할 수 있다. 모둠 이동시에 소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사전 지도가 필요하며 수업 방법에 대하여 학생들이 미리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지 않으면 수업 진행 도중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

또한 음악과에서도 감상을 활용한 수업 모형을 연구한 사례가 최근 많이 진행되고 있다. 강윤경의 논문에서는 음악 교과와 국어 교과의 통합된 학습지도 방안으로 감상학습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32] 그러나 음악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국어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숙련된 음악적 기술이 요구되는 문제점이 있다.

---

31) 김인영, 앞의 논문, pp.25~40.
32) 강윤경, 앞의 논문 참고.

필자는 먼저 판소리 <춘향가>에서 음악 교육 측면과 소설 <춘향전>에서 국어 교육 측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연구를 시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어과와 음악과의 융합 학습방법으로 공통된 주제를 찾아보겠다. 그리고 영상매체를 통한 감상수업 모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학습목표에 도달하며, 정서적 감흥을 진작시키고, 더 나아가 고차원적인 즐김의 미학에 접근하도록 융합 원리에 의거한 학습지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Ⅳ. 판소리의 융합교육을 위한 교과서 내용 분석

1. 국어과목과의 융합을 위한 음악교과서 내용 분석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음악 교육의 성격을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즐기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33]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감상학습의 경우 역사적 · 문화적 맥락에서 음악을 감상하고, 분석하고, 토의하여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고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음악교과의 지도에 있어서 음악과 관련된 내적 구조와 형식을 이해하고 음악적 활동을 하게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특정한 음악 작품이 형성된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바탕을 함께 지도함으로써 음악 작품이 태어난 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함을 언급한 것이다.

음악 교과와 국어 교과는 음악과 문학이라는 별개의 예술 장르를 가르치는 교과이지만, 표현력과 창의력이라는 공통의 요구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 관련성이 깊다.[34] 또한 원시시대부터 비롯된 말[詩]과 노래[歌]의 밀접한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음악과 문학은 동일한 기원을 갖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음악 교과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는 교과들 가운데 국어 교과의 영역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필자가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음악 교과와 국어 교과의 통합 빈도수는 다른 교과와의 통합 빈도수보다 월등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출판사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음악 교과와 국어 교과와의 융합이 음악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국어 교과와의 융합이 가능한 내용을 음악교과서 종류에 따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33)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1998, p.28, p.49.
34) 우세진, 『음악과 통합 수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20~21.

<표1> 음악 교과에 나타난 국어 교과와의 융합 가능한 내용 분석

교과서	내 용
태성 교과서	· 가사로 쓰인 시를 낭송하여 보고, 글의 분위기와 주제를 알아보자. · 가사의 내용을 음악적 표현 요소를 사용하여 어떻게 표현했는지 글로 써 보자 · 주어진 가락에 간단한 가사를 만들어 불러 보자. · 판소리, 단가, 창극의 특징을 글로 써 보자. · <수심가>의 가사에 나오는 한자 표현의 뜻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알아보자. · 제재곡(농부가)의 가사를 바탕으로 메기고 받는 부분의 가사를 새로 만들어 노래 불러 보자.
대한 교과서	· 시조에 다른 평시조의 가사를 붙여서 전문가의 소리를 따라 불러 보자. · <'새타령>의 가사에는 다양한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자어 외의 단어를 찾아서 알아보자. · 메기는 부분의 가사를 각자 창의적으로 만들어 불러 보자. · 주어진 시를 가사로 하여 두도막 형식의 악곡을 만들어 보자.
세광 출판사	· 주어진 가사로 가락을 지어 모둠별로 발표하고, 느낌을 서로 평하여 보자. · 모둠별로 주제에 따라 이야기를 꾸미고 소리를 구성한 후, 상황 묘사 음악을 만들어 보자.
박영사	· 메기는 부분의 가사를 즉흥적으로 지어 노래 불러 보자. · <유산가>의 가사 내용을 살펴보고 그 뜻을 찾아보자. · 제재곡의 가사 내용을 살펴보고 그 뜻을 알아보자. · <새타령>을 빠른 중중모리 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부분의 가사 내용을 알아보자. · <춘향가>의 <쑥대머리> 대목의 가사 내용과 용어를 알아보자 · 제재곡의 가사 내용을 잘 살펴보고 분위기를 살려 노래해 보자.
현대 출판사	· 문학과 음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야기 해 보자. (목적과 표현 수단, 기능 영향력 면 등) · 이야기를 정해 음악으로 표현해 보고, 이야기로 했을 때와 음악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자. · 시조의 가사로 사용된 시조시에 대해 알아보자. · 가사에 어울리는 가락을 만들어 보자. · 다음 가사에 어울리는 민요풍의 가락을 만들어 보자. · 가사에 민요 음계로 된 가락을 지어 보자.

	· 가사에 즉흥적으로 리듬을 붙이고 발표해 보자. · 그룹별로 재미있는 전래가사를 찾아 리듬을 만들어 붙이고, 여러 가지 타악기와 각자의 목소리로 즉흥 연주해 보자. · 오페라를 감상한 후 감상문을 쓰고 발표해 보자. · 음악극을 만들어 발표해 보고, 극과 음악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천재 교육	· 가사의 의미를 살려 노래해 보자. · 시조시 형식의 노랫말을 지어 제재곡의 가락에 얹어 노래해 보자. · 가요의 가사를 의미와 종류,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 판소리 <춘향가>의 공연을 감상하고, 감상문을 써서 발표해 보자. · 제재곡의 가사를 음미하며, 자연을 노래하는 짧은 시를 만들어 보자. 또 그 시에 가락을 붙여 노래 불러 보자.

각 교과서에서 내용으로 제기한 문제들을 살펴보면, 음악적 활동 자체만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것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가사로 쓰인 시를 낭독하는 것을 비롯하여 내용 파악과 감상문 쓰기, 그리고 극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교과를 융합하여 지도하는 융합수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은 주제에 대한 융합적 이해를 꾀할 수 있고 교과의 내용의 중복을 피할 수 있으며, 예술 장르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춘향전> 내용과 음악 교과의 판소리 <춘향가>의 수록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오늘날에 전해지는 판소리 다섯 마당 중 <춘향가>는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문학과 음악 영역에서 교육상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판소리는 대부분 개념 지도와 함께 감상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즉 <춘향가>의 주요 대목인 <이별가>, <쑥대머리>, <어사출도>, <사랑가>, <적성가>, <농부가> 등의 유명 대목을 감상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판소리의 본령에는 접근하지 못하였다.

<춘향가>의 음악적 짜임새를 극적 구성과 연관시켜서 살펴보면 '춘향의 사랑', '춘향의 이별', '춘향의 시련', '춘향의 재회'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네 부분의 구조는 기, 승, 전, 결로 대변되는 형식의 틀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5] 이 네 부분을 각각 연주하게 될 경우 어느 유파에서나 마찬가지로 한 시간이

35) 백대웅, 『다시 보는 판소리』, 도서출판 어울림, 1995, p.24.

넘는 길이로 짜여져 있다. 이러한 <춘향가> 네 부분의 음악적 구조와 극적 구성은 각 유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6]

<표2> <춘향가>의 음악적 구조와 극적 구성의 흐름

순서	음악적 구조 와 극적 구성
기 (만남과 사랑)	'춘향의 사랑' 부분은 맨 처음부터 <사랑가>까지로, 극적 배경 때문에 대체로 씩씩하고 호기 있는 우조와 한가롭고 화평한 악상의 평조로 되어 있으며, 노래들은 줄거리를 해석하는 유파에 따라서 동기유발이 부분적으로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춘향의 사랑'이라는 내용면에서는 대부분 동일하며 모든 유파가 여러 곡 중 <사랑가>의 비중을 가장 크게 두고 있다.
승 (이별)	'춘향의 이별'은 본관사또가 서울로 가는 아니리 대목부터 이 도령이 서울로 떠나는 대목까지로, 극적 배경에 따라 곡 전체가 설움으로 가득 찬 슬프고 애처로운 계면조로 짜여졌다. 극적 전개로 볼 때에는 단순한 이별 장면에 불과하지만, 사랑이 주는 기쁨은 순간이어도 이별의 슬픔은 영원하다는 통념을 표현하듯이, 그 심경을 노래하는 부분으로 각 유파마다 한 시간도 넘게 부른다.
전 (고난)	'춘향의 시련'은 신임 사또의 부임 장면부터 <옥중가>까지로 <신년맞이>, <춘향 잡으러 가는 대목>과 같은 희극적인 노래와 <십장가>, <옥중가> 같은 비극적인 노래가 조화를 이루어 창자의 기교가 많이 가미되는 부분이다. 각 유파에 따라서 장단 구성을 달리하기도 하며 또 유파에 따라 <쑥대머리>, <귀곡성>이 첨가되기도 한다.
결 (보상)	'춘향의 재회'는 이 도령이 과거 보는 대목부터 이야기의 끝까지로, 극의 줄거리로 보면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파에 따라 청중들을 사로잡는 극적 전개는 비슷하고 <과거장>, <서리 역졸 분발>, <농부가>, <박석고개>, <어사또 춘

36) <표2>는 백대웅, 위의 책, pp,24~27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성한 것임.

	향모 상봉>, <어사와 춘향의 재회> 같은 노래가 포함된다. 창법에서는 예를 들어 <박석고개>의 경우 유파에 따라 달리 표현되는데, 씩씩하고 의협심 강한 성격으로 묘사되기도 하며, 침착하면서 회한에 차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유파도 있다.

이것이 비록 음악적 짜임새라고 할지라도, 전체의 구성은 소설이나 희곡의 극적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비극과 희극의 상대적 대칭구조도 확연히 드러난다. 국어과목과의 융합적 교육방식의 필요성이 거듭 확인되는 대목이다.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1학년 8종 교과서와 2학년 2종에 수록되어 있는 판소리 <춘향가>는 각 교과서마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에서의 융합적 접근 방법에 의한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3> 7차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춘향전>교육내용

영 역	지 도 내 용	수록 교과서
이해, 가창, 감상, 기악, 창작	· 판소리의 구성요소 파악하기(소리, 아니리, 발림, 추임새). · 장단(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장단)을 이해하고 쳐보기. · 판소리 다섯 마당을 이해하고 추임새 사용을 이해하기. · 판소리 창법을 이해하고 <춘향가> 중 <천자 뒤풀이>곡에 가사 붙이기. · <춘향가> 중 <남원 경치> 감상하기.	교학사 - 고춘선 · 홍종건
이해, 감상	· 판소리와 창극의 연주 형태 비교하기. · 악곡의 내용 이해하기. ·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이별가> 감상하기.	두산 - 이흥수 · 황병훈 외
이해, 감상	· 판소리 개념과 역사 및 판소리 4요소(소리, 아니리, 발림, 추임새) 및 판소리의 유파와 단가의 개념 이해하기.	대한교과서 - 김성수 · 이성재 외

	· 판소리 다섯마당 중 유명한 곡 찾아 감상하기.	
이해, 가창, 감상, 기악, 창작	· 판소리의 개념과 역사. · 판소리의 4요소 및 판소리 유파 알아보기. · <춘향가>의 유명한 대목의 종류 알아보기. <쑥대머리>의 내용, 장단, 해설, 가사 이해하기 및 감상. · <춘향가> 중 <옥중가> 대목을 전문가의 소리를 들으며 흉내 내며 부르기.	박영사 - 이강율 · 주광식 외
이해, 감상 기악	·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와 판소리 <춘향가>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해하기. · <춘향가> 중 <사랑가>를 즉흥적으로 추임새 넣어 가창하기. · 판소리 북 장단 쳐보기. · <춘향가> 중 <사랑가>, <남원 경치>, <이별가>, <옥중가>, <어사출두> 등 유명 대목 감상하기.	세광음악출판사 - 정영택 · 허화평
이해, 감상	· 서양의 오페라와 우리나라의 창극을 이해하고 판소리와 비교하며 감상하기. · 창극 <춘향가> 중 <적성가>, <천자풀이>, <사랑가>, <이별가>, <신년맞이>, <옥중가>, <어사출두> 감상하기.	천재교육 - 백병동 · 최헌 외
이해, 가창, 감상	· 판소리와 창극의 개념 이해하기. · 창극의 유래 및 연주 형태를 알고 감상하기. · 추임새 따라 가창하기. · 판소리 다섯 마당과 함께 <춘향가> 감상하기.	현대음악출판사 - 윤경미 · 윤진
이해, 감상	· 장단을 나타내는 정간보의 구음 독보를 중중모리 장단에 맞추어 익힌 후 감상하기. · '아니리' 부분의 구체적 예시를 이해하고 역할 별로 나누어 음악극으로 체험하기.	음악과 생활(법문사) - 노동은 · 최태현
가창, 감상 기악, 창작	· <자진사랑가>를 중중모리 장단에 맞추어 부르기. · 판소리를 감상하고 동편제와 서편제의 특징을 비교 이해하기. · 제재곡의 리듬치기. · 중중모리 장단의 변형을 만들어 장구로 쳐 보기.	음악과 생활(교학사) - 이용일 · 김우진 외

교과서에 따른 약간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학습활동 영역의 중점은 이해와 감상에 치중되어 있다. 국어과목의 중심 영역인 개념과 내용 이해로부터 구성요소 파악과 감상 후 활동들을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감상문을 쓰고 그 내용에 따라 지도하는 방식이 추가되려면 국어과목과의 융합이 더욱 긴요해진다. 아울러 창작 활동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문학작품의 창작 기법과 적용 방법을 터득하여 수업에 활용해야 한다.

2. 음악과목과의 융합을 위한 국어교과서 내용 분석

현행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판소리계소설은 <춘향전>을 비롯하여 <심청전>, <흥부전>, <토끼전> 등이다. 소설이 아닌 판소리 창본으로 <적벽가>가 나오고 판소리가 전하지 않는 작품 <장끼전>도 실려 있다. 판소리와 판소리계소설이 국어과목에 차지하는 중요성은 작품의 수록 양상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 작품인 <춘향전>을 대상으로 하여 관련단원과 학습목표를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4> 7차 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춘향전> 관련 단원

단원명	대단원명	학습목표	수록교과서
춘향전	7. 전통과 창조	우리 문화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국어 하
춘향전	4. 문학과 문화 1) 문학 문화의 특성 -이해 활동	조선시대 서민의 생활상과 정서가 작품 속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대한교과서 하
춘향전 (완판본)	1. 문학과 문화 1)문화로서의 문학	문학 작품의 소통 규칙과 관습을 이해한다.	지학사 하 (박갑수 외)
춘향전 (완판본)	3. 소설의 수용과 창작 2) 소설의 시점과 구성	장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화자의 시점과 인물의 심리를 이해한다.	천재교육 상
춘향전 (완판본)	8. 한국문학의 특질과 흐름 4) 중세 후기 문학의 흐름 (1) 조선 후기의 문학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고유한 특징을 이해한다.	블랙박스 하
열녀춘향수절가(완판본)	2. 한국문학의 흐름과 전통 3) 조선시대의 문학	조선시대 문학에 나타난 조상들의 삶을 이해한다. 판소리계소설의 특징을 이해한다.	청문각 하

소설춘향전/희곡 춘향전 비교·감상	5. 희곡의 수용과 창작 2) 희곡의 무대와 삶 - 보충·심화	두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하고 활동을 해 보자. (차이점, 인물 성격 제시방법 등)	청문각 상

<춘향전>은 판소리 창본보다 소설로 전환한 작품들이 주로 교과서에 채택되었다. 보충학습으로 판소리 창본 <흥보가>를 연결하여 판소리 장단을 학습하는 내용이나 판소리 사설과의 상관성을 학습하는 활동 등을 제시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교과서 본문에 판소리 창본을 인용한 사례는 없고 오직 소설 <춘향전>만을 다루고 있다.[37]

이 목표들을 살펴보면 음악과목과의 융합을 이루는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국어과목의 판소리 교육은 음악과목이 추구하는 목표와 달리 문학 일반으로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 전통의 이해와 조선시대의 삶과 문화에 관한 이해가 중심을 이룬다. 이는 판소리가 문학의 대상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었지만 음악적 표현을 도외시하고 단절시킨 결과 교육상 편향된 학습목표를 제시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판소리는 융합의 예술이므로 당연히 판소리의 학습목표는 음악과의 융합이라는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국어교과서가 꼭 판소리 창본 위주로 작품을 선택해야 할 필요는 없다. 창본이든 소설이든 판소리에서 파생된 작품을 학습한다면 가창과 감상을 함께 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활용하면 될 것이다. 다른 판소리 작품들의 국어교과서 수록 양상은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37) 김인영, 앞의 논문, p,13.

Ⅴ. 판소리 교육의 융합적 모형과 실제

1. 융합적 모형의 근거

판소리에는 '이면을 그린다', '이면을 잘 그린 판소리가 훌륭한 판소리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면(裡面)'이란 외형으로 나타나는 것 뒤에 숨어 있는 것, 즉 그것이 나타내려고 하는 속 의미를 뜻한다.[38] 국어 교과 측면의 '사설'과 음악 교과 측면의 '소리'가 서로 상응하여 이면을 잘 그려내기 위해서는 내용에 부응하는 장단이나 성음 같은 음악적 요소들이 잘 대입되어야 하며, 이면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사설을 실감나게 묘사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융합적 모형의 수업을 통해 '이면이 잘 그려진 판소리'를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적·정서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 모형을 이루는 근거로서 창의적 감상과 표현 위주의 방법을 제시하고 <춘향전>을 대상으로 삼아 교수 학습 방법의 실제를 보이기로 하겠다.

감상 활동은 모든 음악적 행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수업에서 감상하는 것을 쉬는 시간이나 부수적인 활동 정도로 생각하는 태도가 있는데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듣는 행위가 아니라 창조적 사고를 유발시키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음악을 듣고 구성 요소를 감지 식별하고 형식적 구조의 분석은 물론, 나아가 악곡이 함축하고 있는 예술적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때 학생들의 흥미와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투입하거나 신체적 활동을 병행하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수업에서 요청되는 감상은 창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작곡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꾸준한 사고가 동반되는 감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음악 감상은 교육상 그 비중이 크다. 그들이 예술을 수용할 수 있는 폭과 깊이를 이미 내면에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의 음악 감상 체험의 질과 범위와 수준이 그들의 음악적 삶의 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39] 음악 활동의 범위는 워낙 다양하고 또 기능이 요청되는

38) 국립민속국악원, 앞의 책, p.53.

큰 세계이므로 일반적인 학생이 경험하게 되는 음악은 감상 위주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용적인 학습 모형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형의 기초는 적극적 참여 방법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 감상 학습 자체가 자칫 수동적 태도로 흘러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어떻게 학습자 다수를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론이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 다수 참여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흥미 유발의 여건이다. 다양한 체험 활동이나 영상매체의 적절한 활용이 이에 관한 해답이 될 것이다.

문학적이고 음악적인 체험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면 이상적인 모형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학에 있어서 모든 체험의 출발은 읽기에서 비롯된다. 읽기를 어떻게 능률적으로 실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앞에 교사는 고민해야 하며, 평소에 글 읽기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실행하고 지도해야 한다. 판소리와 같은 문학작품은 반드시 소리 내어 읽고, 여럿이 함께 읽고, 감상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작업을 실천한 뒤 학습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 다양한 읽기가 모형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창의 부분은 노래로 불러보는 체험 활동을 필요로 한다. 판소리 창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므로 잘 아는 민요에 대입시켜 민요조로 부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교사가 시범을 보이기 어렵다면 미리 제작된 영상물들을 자료로 활용한다. 영상을 통해 판소리 명창을 만날 수 있고, <춘향가>의 배경이 되는 남원의 광한루도 볼 수 있어 생생한 현장감을 갖게 한다. 고수가 행하는 판소리 장단의 주법도 경험하게 된다. 이런 특수효과를 활용하여 학습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40] 예를 들어 판소리 북의 구조라든지, 판소리 성음을 위한 목의 구조 등과 같이 학습자가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사물을 카메라 기법을 통해 감상하고 관찰하게 만든다.

융합적 통합은 교과들 간에 중복되는 원리, 공통적 이슈, 공동의 관심사에 기초해서 프로그램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융합은 교과들의 단순한 병렬이 아니라 교과들을 뒤섞어 재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41] 본 연구에서는 <춘향전>의 문학적인 교육 방법과 음악적인 교육 방법을 상보적으로 활용하는 관계에서

39) 이홍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세광음악출판사, 1992, p.296.
40) 강은수, 「영상매체를 활용한 음악 감상 교육 방법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27.
41) 강윤경, 앞의 논문, p.14.

두 교과가 공유하고 있는 개념을 근거로 두고, 교수-학습 모형의 실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융합적 모형에 따른 <춘향전> 교육의 실제

1) <춘향전> 지도 계획

고등학교 1학년 국어(하) 7단원에 <춘향전>이 실려 있다.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7단원은 총 8차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춘향전>은 그 중에 2차시로 배정되어 있어 <춘향전>을 충분히 학습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다. 2차시라면 교과서에 나온 <춘향전> 본문의 내용을 읽고, 제시된 학습 활동을 하고, 주제를 파악하면 끝나게 되고 만다. <춘향전>의 내용뿐만 아니라 판소리계소설의 기원과 역사, 판소리와의 비교, 표현의 독특한 특징과 인물의 특성 등을 학습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다.

음악과목에서 <춘향가>는 완전한 1차시로도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판소리의 기본 장단을 익히고 <춘향가>속의 일부를 감상하며 민속음악 전반에 걸친 내용을 1차시에 교육하도록 하는 정도이다. 역시 불만족스러운 시간일 수밖에 없다. 융합적 모형에 의한 학습시간으로 현실을 감안하여 3차시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지도 계획을 수립하기에 결코 넉넉한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시간 수를 요구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미리 과제를 부여하고 수행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3차시로 세부안을 짜게 되었다. 읽기와 극적인 낭독, 그리고 감상을 활용한 가창과 기악의 영역까지 나아가며 <춘향전>을 패러디한 글쓰기를 시도하는 학습지도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음 절에서 그 내용을 기술하기로 한다.

2) <춘향전> 교수-학습 방법

(1) 학습 준비

모둠은 학교의 악기(북과 장구) 구비 실태와 학급 구성원의 성별과 전(前)학기 국어 성적을 기준으로 교사가 임의로 정하고,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

생들을 적절히 나누어 이질적 집단이 되도록 한다. 이것은 한 모둠에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나 낮은 학생들만이 모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생들은 전(前)시간에 모둠별로 모여서 모둠원들을 확인하고 모둠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교사는 음악 교과와 국어 교과의 융합 학습형태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히 가르쳐준 후 단원을 한 번 읽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에 과제가 제시되어 있는 학습지를 각 모둠에게 나누어 준다. 각자 책임감 있게 공부해 오도록 미리 안내를 하고 학습지는 나중에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발표나 토의 활동은 과정 평가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발표와 토의에 임하는 자세를 관찰하여 수행평가에 반영토록 하고 이를 미리 알려주어 적극적으로 발표와 토의활동에 임하도록 한다.

교사는 영상 매체 활용을 위해 자료를 제작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하며 악기를 준비한다. 학습지는 각 과제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질문 몇 가지가 제시되어 있고 질문은 학생들의 학습 범위나 깊이의 정도를 제시해 준다. 국어 교과와 음악 교과의 융합 방법과 진행에 관한 학생들의 충분한 이해가 있은 후 모둠과 모둠원들을 정하고 과제를 나누어 갖는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시간에 활동을 중심으로 한 수업이 이루어진다. 수업의 진행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지도 내용

국어 교과의 소설 <춘향전>과 음악 교과의 판소리 <춘향가> 단원에서 지도할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국 어[42]	음 악[43]
· <춘향전>의 줄거리와 전체 구조, 배경 설화 알기. · 각 인물들의 성격과 주제 파악하기. · <춘향전>에 나타난 전통 문화 사상 알기. · <춘향전>의 문체상의 특징 이해하기. · <춘향전>의 형성 과정과 적층문학과 다양한 이본에 대해 알기. · 다양한 매체로 변용된 <춘향전> 살펴보기.	· 판소리의 구성 요소 이해하기. · 기본 장단 익히기. ·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를 소리북으로 반주해보고, 노래 불러보기. · <춘향가>를 전문 연주가의 연주로 감상하기. · 판소리와 창극을 비교하여 특징을 이해하기.

42)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고등학교 국어 교사용 지도서(하)』, (주)두산, 2002.

이를 바탕으로 국어 교과와 음악 교과의 감상을 활용한 융합 수업 프로그램의 제작에 들어간다. 내용과 순서는 두 교과에서 반드시 지도해야 할 내용을 중점적으로 구성하고, 판소리계소설과 판소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표현 형태를 직접 비교해 보도록 하였으며, 현대에 이르러 판소리에서 파생된 여러 장르들을 알아보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융합지도내용	◆ 판소리의 구성 요소 이해하기(창, 아니리, 추임새, 발림). ◆ 영상자료를 통한 - 기본 장단 익히기(중모리 장단). - 음악 교과서의 제재곡 <사랑가> 배우기. - 전문 연주가의 연주로 <춘향가> 감상하기. ◆ 판소리 <춘향가>와 소설 <춘향전>의 관계 이해하기. ◆ 소설 <춘향전>의 주제를 파악하고, 전통 문화 사상이 드러난 부분 알기. ◆ 소설 장면과 관련된 판소리 대목 비교하기. ◆ <춘향 해칼하여라>의 사설 구조와 내용 살펴보기. ◆ <춘향 해칼하여라>의 아니리 불러보기. ◆ 판소리와 판소리계소설과 관련된 장르 이해하기. ◆ <춘향전>을 패러디하여 글을 써 발표하고 느낌을 이야기하기. ◆ <춘향전>의 변형된 작품을 알아보고 판소리 문학의 발전적 계승 방법에 대해 토의하기.

판소리와 판소리계소설의 비교를 위해 판소리 <춘향가>의 여러 대목 중 <사랑가>를 선택한 이유는 <춘향가> 가운데 가장 알려진 곡으로 음악과의 여러 교과서에 감상곡으로 실려 있으며 국어과의 소설에서 주제 파악을 위한 감흥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곡이기 때문이다. <춘향 해칼하여라>라는 곡은 국어교과서의 지문과 관련된 부분으로, 음악 교과의 판소리 지도요소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어 두 교과를 융합시켜 수업하기에 적절하다. 또한 글쓰기에서 패러디 형태를 선택한 것은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고전의 학습에 시대적 감각을 투여하여 흥미를 제공하면서 글쓰기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수업 지도안

국어 교과와 음악 교과와의 주제들을 재배열하여 만든 융합 주제들을 가지고 융합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융합 프로그램 개요를 작성하여 봄으로써 하나의 주제에

43)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고등학교 음악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주), 2003.

대한 수업 지도안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한 국어 교과와 음악 교과의 통합 주제 중에서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을 선택하여 융합 수업 프로그램 세안을 작성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음악 교과의 단원은 '극과 음악 - 사랑가(판소리 춘향가)'이고, 국어 교과의 단원은 '7. 전통과 창조 춘향전'이다.

수업은 학습 목표에 따라 3차시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학습 주제	판소리계소설 <춘향전>과 판소리 <춘향가>	
융합 교과	국 어	음 악
단원명	7. 전통과 창조-<춘향전>	극과 음악-판소리<춘향가>중 <사랑가>
학습 목표	소설 <춘향전>을 읽고, 재미있는 표현을 모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관련된 자료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춘향전>을 패러디한 글쓰기를 하여 본다.	판소리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고, 중중모리 장단에 맞추어 <사랑가>를 부를 수 있다.
융합 학습 목표	1) 판소리 <춘향가>와 소설 <춘향전>의 형성 과정을 알 수 있다. 2) 판소리의 구성 요소와 장단의 기능을 이해하고, 판소리 <춘향가>의 <사랑가>에 알맞은 중중모리 장단을 칠 수 있다. 3) 소설 <춘향전>을 읽고 주인공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우리 민족 문화의 주제와 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 4)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을 중중모리 장단에 맞추어 흥겹게 부를 수 있다. 5) 판소리와 판소리계소설에서 파생된 여러 장르들을 이해할 수 있다. 6) 소설 <춘향전>의 장면과 관련된 판소리 <춘향가> 대목을 아니리로 부를 수 있다. 7) <춘향전>을 패러디한 과제물을 발표하여 보고 느낌을 이야기하며 판소리 문학의 발전적 계승 방법에 대해 토의하여 보자	

◆ *1*차시

교과서	국어(하) 음악	대상	고등학교 1학년	차시	1/3
		단원	7(1). 춘향전, 극과음악<춘향가>		
융합 학습 목표	1. 판소리 <춘향가>와 소설 <춘향전>의 형성 과정을 알 수 있다. 2. 판소리의 구성 요소와 장단의 기능을 이해하고, 판소리 <춘향가>의 <사랑가>에 알맞은 중중모리 장단을 칠 수 있다.				
수업 적용 모형	감상을 통한 기악·이해의 융합 수업				
학 습 자 료	교사		학생		
	교과서, 학습지도안, 장구, TV, 컴퓨터 및 빔프로젝트, PPT자료		교과서, 학습지(과제 제출), 필기도구		

단계	학습내용	시간	교수-학습활동		학습형태	학습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전시 학습 확인 학습 동기 유발 학습 목표	10″	▶인사 후 출석 확인 -수업 분위기 조성 ▶학습 내용 확인 -과제물 확인 ▶수업 소개 인터넷 동영상 감상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 ▶PPT로 학습 목표 제시 -따라 읽도록 지시함	▷인사 후 출석 확인 동참 -과제물 확인 및 교사의 질문에 대답 ▷감성적 학습 동기 유발 ▷함께 학습 목표 읽기	감상 및 질의 응답	TV PPT 자료제작 영상자료 제작 및 상영 준비
전개	단원 이해 활동 감상을 통한	10″ 15	▶판소리계소설의 형성 과정 제시 -과제물 발표학습 및 PPT 자료제시 ▶<춘향전> 배경설화 알아보기 -과제물 발표학습 및 PPT 자료제시 ▶판소리의 구성 요소 이해하기 -과제물 발표학습 및 PPT 자료제시 ▶기본 장단 익히기 -영상자료 제시 -판소리에서 장단은 **진양조, 중모리,**	▷과제물 발표하기 ▷각자 과제를 살피며 판소리 구성 요소를 정확히 이해한다.	설명 전달 학습 모	PPT 영상자료 제시 북, 장구 준비에 소란스럽지 않도록

	기악 연주	〃	**자진모리, 휘모리** 등이 쓰인다. -판소리에서 장단의 중요성 설명 -선생님이 장구 장단을 치는 것을 듣고 각각 장단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중중모리 장단 치기 -교사가 시범으로 북장단을 치고, 학생들이 각각의 차이에 대해 서로 이야기한다. -화면을 보고 장단을 쳐 본다.	▷모두 웃으며 즐거운 수업 분위기가 형성된다. ▷모둠별로 북과 장구를 사용한다. ▷영상 자료를 보고 중중모리 장단 익히기 ▷모둠별로 선생님의 북장단을 듣고 서로 장단을 치며 흥겹게 진행한다. -반복하여 익숙하게 칠 수 있도록 한다.	둠학습 개별지도	지도함 모둠원이 서로에게 가르쳐줄 수 있도록 함
내면화 차시예고	감상하기 모둠별 확인학습	15〃	▶전문가의 연주로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 감상하기 -<춘향가>의 한 대목을 감상해 보고 지금까지 배운 판소리의 구성 요소와 장단을 생각하도록 한다. -영화 <춘향뎐>(<사랑가>-조상현 노래) 감상 -전문가의 연주를 감상하고 느낌을 발표하도록 한다.- 굵고 힘있는 소리 http://suce.chllian.net/~chun4270/pant hml 사이트 소개 -영화 <춘향뎐> 몇 장면을 선택하여 감상하기 ▶형성평가 ▶차시예고 -소설 <춘향전>의 교과서 내용을 읽고 인물들의 성격 조사 및 글의 주제 조사하기를 과제로 제시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바른 태도로 감상한다. -느낌을 발표해 본다. -흥미롭게 감상한다. -평가에 임한다. -모둠별로 적정한 과제를 분담한다.	느낌발표하기 확인학습	홈페이지 제공하며 바르게 감상하도록 함 감상 노트 준비 평가지 준비 과제숙지하기

< 1차시 세부 학습 전개 내용>

1. 도입

1) 전시학습 확인

인사와 전시학습 확인을 하며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북장단 수업을 위해 모둠별로 적절히 좌석 배치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2) 학습 동기 유발

인터넷을 통한 영화 <춘향뎐>을 제시하여 감상하면서 단원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

☞ 관련 인터넷 사이트: http://suce.chllian.net/~chun4270/panthml

3)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수업에 대한 준비를 한다.

음악과와의 융합 수업 형태로 수업이 진행됨을 주지시킨다.

2. 전개

1) 판소리 형성 과정 설명학습 -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작하여 제시한다.

판소리는 광대 한 사람이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긴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극음악이다. 우리가 배울 <춘향가>는 지금까지 남겨진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로 처음에 민간설화로 구비전승 되다가 소리판에서 불려졌고, 나중에 소설 <춘향전>으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음악교과서에 나오는 <춘향가>가 국어교과서에도 <춘향전>으로 실려 있는 것이다. 또한 1900년 이후에 '원각사'라는 공연장에서 창극으로 공연되었고, 지금은 영화, 뮤지컬, 마당극,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로 만들어지고 있다.

2) <춘향전> 배경설화 설명학습 - 과제물 발표학습으로 진행하고 교사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작하여 내용을 정리하여 이해시키도록 한다.

<춘향전>의 전체구조와 배경이 되는 근원설화 · 이 도령과 성춘향의 사랑과 이별[애정설화] · 탐관오리 변학도의 부임과 춘향에 대한 수청 요구[(관탈민녀(官奪民女)설화] · 변학도의 요구에 대한 춘향의 거절과 수난 · 이 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 출도, 변학도 징벌[암행어사 설화] · 춘향과 이 도령의 재결합과 백년해로[신원설화]로 짜여져 있다.

3) 판소리 구성 요소 이해하기 - 파워포인트 제작하여 설명학습

판소리는 한 사람이 노래 부르는 ***'소리(창)'***와, 판소리에서 창자가 소리를 하다가 한 대목에서 다른 대목으로 넘어가기 전 자유리듬으로 사설을 엮어 나가는 **'아니리'**로 이루어졌다. 아니리는 소리를 엮는 고리의 기능만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로서의 문학성을 갖고 있다. **'발림'**은 창자가 판소리에서 소리의 가락이나 사설의 극적인 내용에 따라서 손·발·온몸을 움직여 소리나 이야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몸짓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너름새'란 말로 널리 사용되었다. 고수는 북 장단과 함께 '으이', '얼쑤', '잘 한다' 등의 **'추임새'**로 흥을 돋우게 된다. 추임새가 나와야 창자는 힘을 얻어 더욱 열창을 하게 된다. 판소리는 창자와 고수, 관중이 삼위일체가 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공연 예술이다.

4) 판소리 장단 익히기 - 영상자료를 제시한 감상을 통한 직접적인 기악 수업으로 교사는 시범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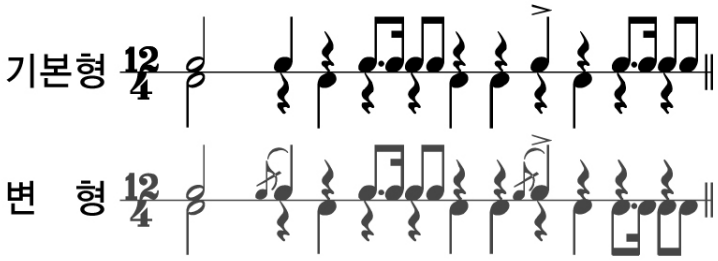
☞ 관련 인터넷 사이트: http://www.cmc21.com

- 연주 모습을 보면 고수(鼓手)가 소리에 맞추어 북으로 장단을 반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수가 장단을 짚어주지 않으면 소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명창들이 자주 언급하는 '맺고', '달고', '조이고', '푼다'라는 말은 모두 이 장단의 기능에 의한 판소리의 감칠맛 나는 창법을 풀어가는 기교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모든 민속음악에서는 장단의 틀이 어떤 음악 전체(박자, 빠르기, 셈여림, 등)를 통제하는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장단 치기를 반복하여 실시하고 교사의 시범 연주 및 학생들을 개인 지도를 통하여 북 장단을 칠 수 있도록 한다.



구음: 덩 덕 쿵 덕더더덕 쿵쿵 딱 쿵 덕더더덕

부호: ① | O | - -| OO | O | - - |

3. 내면화

1) 감상하기 - 영상자료 준비

- 전문가의 연주로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 감상하기

<춘향가>의 한 대목을 감상해 보고 지금까지 배운 판소리의 구성 요소와 장단을 생각하도록 한다.

- 영화 <춘향뎐>(<사랑가>-조상현 노래) 감상 - 전문가의 연주를 감상하고 느

낌을 발표하도록 한다. - '굵고 힘 있는 소리' - 차시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한다.

- 학생들은 흉내를 내기도 하며 영화 감상에 강한 흥미를 나타낸다.

http://suce.chllian.net/~chun4270/panthml 사이트

2) 형성평가 - 학습지를 준비한다.

- 판소리 근원설화 두 가지 이상 이야기하기
- 판소리의 구성 요소 이해하기 확인

4. 차시학습 예고 및 과제물 제시

- <춘향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둠별로 교과서를 읽고 인물들의 성격 조사 및 글의 주제를 조사하는 과제를 제시한다.

◆ *2차시*

교과서	국어(하)	대상	고등학교 1학년	차시	2/3
		단원	7(2). 춘향전, 극과 음악 <춘향가>		
융합 학습 목표	1, 소설 <춘향전>을 읽고 주제와 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 2.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을 중중모리 장단에 맞추어 흥겹게 부를 수 있다.				
수업 적용 모형	**이해 중심의 융합 이론 수업 및 영상자료 감상을 통한 가창 학습**				

학습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학습지도안, TV, 컴퓨터 및 학습지(교사제작용), PPT 자료	교과서, 학습지(과제 제출), 필기도구

단계	학습내용	시간	교수-학습활동		학습형태	학습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전시 학습 확인 학습 목표 제시	5″	▶인사 후 출석 확인 -수업 분위기 조성 ▶수업소개 - 2차시로 음악과와 융합적 수업임을 알림 ▶학습목표 제시 - PPT 자료 학습목표 제작	▷인사 후 출석 확인 동참 ▷교사의 질문에 대답 ▷학습목표를 주지한다.		PPT 자료 제작 및 학습지를 준비한다.

전 개	이해 영역 가창 이해 학습	30 〃	▶소설 <춘향전>의 주제 이해하기 -과제물 발표학습 및 PPT 자료 제작 설명하기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소설 <춘향전>의 주제를 파악하고, 전통 문화 사상이 드러난 부분 알기 ▶음악 교과서의 제재곡 <사랑가> 배우기 -<사랑가>의 장단 확인 -영상매체 제시 http://www.ntok.go.kr/pds/MovieViewLst.jsp -교사의 시범창 ▶ 간단하게 단전호흡(복식호흡)과 성음(판소리 음색)에 대한 설명을 곁들인다. -실제 상황을 극처럼 연출하여 본다(“업고 놀자”).	▷학습지 배부 -학습지를 살펴본다. -모둠별로 발표하기 -교과서 읽기 -주제 발표하기 -교과서 읽기 ▷악보 학습지를 본다. -다 같이 소리 내어 읽기 -중중모리 장단 -감상하면서 따라 부르기 -어려운 부분 반복 연습하기 -“선생님! 잘 하시네요. 사랑을 잘 하신 분은 다릅니다.” -학습지를 보며 동영상과 함께 따라 부르기 ▷학습지를 살펴본다. -모두 웃으며 수업 분위기는 흥겨워진다. -상황을 상상하여 본다.	발표수업 감상 및 시범가창학습 설명학습	영상자료 장구, 북 PPT및 학습지 자료 제작
정 착	이해 영역 감상 차시 예고	15 〃	▶ 차시 예고 -문학적 패러디에 대해 설명하기 -<춘향전>을 패러디한 글쓰기 -수행평가에 반영할 것을 공지한다. ☞ 인터넷 네이버 검색: “이영은의 춘향전 패러디 우유 광고” 예시하기 ☞ 패러디를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소개 -파워포인트 제시	▷각자 한 편의 글을 써보기 -줄거리 바꾸기 -시조 가사 바꾸기 -등장인물의 성격 변모시키기 등 -‘이영은’의 우유광고 감상하기 -사이트 알기	발표 설명 수업 감상	영상자료 과제물의 이해를 돕는 영상자료 감상 PPT

< 2차시 세부 학습 전개 내용>

1. 도입

1) 전시학습 확인 - 음악과와의 융합 수업에 대해 다시 환기시킨다.

2) 학습목표 제시 - 파워포인트 제작

2. 전개

1) 이해 영역

- <춘향전>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성격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 교과서 줄거리 중 인간존중 사상이 나타난 부분을 읽고 주제를 파악한다.
- 교사는 인물의 성격과 주제를 파워포인트로 요약 정리하여 제시한다.
- <춘향전> 등장인물의 성격 - 발표학습과 파워포인트 정리
- 등장인물의 성격

·춘향 - 유교적 정절의 여인상으로 신분의 제약을 뛰어넘어 이 도령과 사랑을 성취하는 의지적이며 진취적인 시대의식을 보여주는 인물 ·이 도령 - 처음에는 철없고 미숙한 책방 도련님에서 사랑의 약속을 지키는 의리 있는 인물로 변모하며, 지배층의 억압과 수탈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민중들의 소망과 꿈을 실현하는 인물 ·변 사또 - 부패한 탐관오리의 전형으로 풍자와 조소의 대상이 되는 인물

- 글의 주제 찾아보기 - 교과서 303쪽에서 이 도령이 읊은 시를 살펴본다.
- 교사는 한시의 억양을 살려 멋스럽게 읽어준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촉루낙시 민루낙이요, 가성고처 원성고라"

이 도령이 읊은 시를 통해서 <춘향전>은 고통 받는 민중의 마음을 대변했기 때문에 조선후기 민중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춘향의 수절이 당시 봉건 윤리에도 적절했기 때문에 양반이나 평민 누구에게나 수용되는 일종의 국민문학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춘향전>의 주제 ◆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정절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문화의 형상화)

◆ 탐관오리의 횡포에 대한 풍자 (인간의 삶을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슬픈 일을 당해도 웃음을 통한 극복을 추구함)

2) 가창 수업

- 음악교과서에서 감상곡으로 제시한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을 노래한다.

- <사랑가>는 이 도령이 춘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한 부분이다. 영상자료 화면을 보면서 한 소절씩 노래를 불러 본다. - 가사 학습지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 국립극장홈페이지 http://www.ntok.go.kr/pds/MovieViewLst.jsp

엠파스 검색엔진 http://ipcp.edunet/~koreannote/9/goldmain.html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지 / 이히-- 내사랑이로다 / 아-매도 내 사랑아 /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 강릉의 백청을 다르르르 부어 / 씨는 발라 버리고 붉은 점 웁뿍 떠 / 반간 진수로 먹으랴느냐 /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 당 동지-- 지루지허니 / 외가지 단참외 먹으랴느냐 /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 앵두를 주랴 포도를 주랴 / 귤병사탕의 회화당을 주랴 /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 시금-털털 개살구 / 작은 이 도령 서는데 먹으랴느냐 /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 아장 아장 걸어라 / 걷는 태를 보자 / 방긋 웃어라 아마도 내 사랑아

- 교사의 장단과 중중모리 장단 치기 가능한 학생은 앞으로 나오도록 하여 장단을 치면서 노래한다.

- 교사의 시범 연주는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극대화시키므로 교사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부분 별로 나누어 노래한다.

- 판소리의 발성법은 단전호흡과 밀착되어 있다. 판소리에서 구사되는 일체의 성음은 단전에서 우러나온다. 기초 발성을 위하여 단전호흡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바른 자세로 앉은 상태로 수회 반복하여 지도하도록 한

다.

- 숨을 들이쉴 때는 배꼽 주변을 중심으로 좌·우 한 뼘 정도 부분에 의식을 집중하며 배를 둥그렇게 부풀린다. 또한 숨을 들이쉬는 동안 서서히 항문을 조이며 혀끝은 입천장에 갖다 댄다. - 숨을 내쉴 때는 서서히 조였던 항문을 이완함과 동시에 둥그렇게 부풀렸던 배의 바람을 서서히 조금씩 빼며 숨을 코로 아주 서서히 내쉰다.

- 판소리의 성음(聲音)에 대하여 설명하기

판소리는 성음을 즐기는 예술이라고 한다. 곧 목소리 자체의 음색이나 성질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판소리에서 사용하는 목소리는 보통의 소리가 아니라 목 쉰 소리이다. 그렇지만 무조건 거칠고 탁하기만 한 소리가 아니라 탁하면서도 맑은 맛이 있어야 하고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데가 있어야 한다.

이는 전문가들이 수많은 시간의 훈련을 통해 습득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이히-- 내사랑이로다" "당 동지-- 지루지허니"** 부분처럼 표현이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의 소리를 듣고 감흥을 느끼도록 한다.

- <사랑가>의 장면을 연출해 보도록 한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 사랑하는 사람을 업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연출하여 즐거운 수업 분위기가 되도록 유도한다.

3. 정착

1) 과제물 제시 - <춘향전>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양하게 변형시켜 글을 써서 다음 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과제물은 수행평가에 반영한다.

· 줄거리를 바꾸어 결말을 다르게 이끌어 내기
· 한시 부분 내용 바꾸어 보기
· 만화로 꾸며보기
· 저속한 용어의 사용을 피하며 해학과 비장함이 곁들인 글 등을 써보자.

2) 감상 - 패러디하여 글쓰기를 돕는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흥미를 가지고 과제를 이행하도록 한다.

- 웃음으로 가득한 교실 분위기가 이루어진다.

☞ 인터넷 네이버 검색: "이영은의 춘향전 패러디 우유 광고" 예시하기

우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광고 춘향은 가야금을 연주하며 그네만 타고 놀고 있다. - 향단이 마시라고 주는 우유를 마시지 않고 대신 향단이 우유를 마시게 된다. - 몇 년 후 '마신대로 거두리라' 라는 문구와 함께 이 도령이 돌아오고 - 우유를 마시고 예뻐진 향단에게 달려가는 이 도령 - 춘향은 울면서 우유병을 들고 젖소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종료된다.

- 패러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 소개 - 파워포인트 제작

어떤 인기 작품의 자구(字句)를 변경시키거나 과장하여 익살 또는 풍자의 효과를 노린 경우가 많으며, 때론 소설의 줄거리의 변형을 꾀하여 결말을 바꾸기도 하며 고전물의 인물을 시대적으로 재조명하는 방법도 있다. 창조성이 없으며 때로는 악의가 개입되지만 패러디가 주는 웃음의 정신은 문학의 본질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음악 부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음률에 다른 가사를 붙이는 경우를 패러디라고 하며, 근래에는 영화나 시사성이 강한 사회적 이슈 등을 만화로 패러디하는 경우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 패러디 글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소개

http://www.ddanzi.com/ 딴지일보

http://www.pullbbang.com/ 플빵닷컴 등이 있다.

◆ *3차시*

교과서	국어(하)	대상	고등학교 1학년	차시	3/3
		단원	7(3). 춘향전, 극과 음악<춘향전>		
융합 학습 목표	1. 소설 <춘향전>의 장면과 관련된 판소리 <춘향가> 대목을 아니리로 부를 수 있다. 2. <춘향전>을 패러디한 과제물을 발표하여 보고 느낌을 이야기하며 판소리 문학의 발전적 계승 방법에 대해 토의하여 보자.				
수업 적용	**감상을 통한 가창·기악 수업과 조별 토의 수업**				

모형						
학습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학습지도안, 북, 장구, TV, 컴퓨터 및 빔프로젝트, PPT 자료			교과서, 학습지(과제 제출), 필기도구		
단계	학습내용	시간	교수-학습활동		학습형태	학습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전시학습확인 학습목표제시	5″	▶인사 후 출석 확인 -수업 분위기 조성 <사랑가> 부르기 ▶과제물 확인하기 ▶학습목표 제시 -아니리 대목 가창 -각자가 패러디 글을 발표하기	▷인사 후 출석 확인 동참 -감정을 풍부하게 불러본다. -<춘향전>을 패러디한 글 준비하기	응답 및 설명 학습	과제물 제출확인
전개	이해영역 기악연주 가창 감상 기악연주	15″	▶국어교과서의 어사출도 장면에서 암행어사로 돌아온 이 도령이 춘향을 시험하는 장면과 판소리에서 <춘향 해칼하여라> 대목 살펴보기 - 소설의 내용과 판소리 대목의 관계 설명 -교과서 부분 읽기 -느낌을 발표하게 한다. ▶<춘향 해칼하여라>를 아니리로 불러보기. 아니리는 문장의 시작 중반, 후반의 억양을 올리고 내리며 한다. ▶교사의 시범 읽기 -(칭찬하기) 학생들이 아니리 읽기를 아주 흥미 있게 잘 하였다. -한 장단씩 따라 부르며 반복 연습하고 다음의 연주보를 보면서 장단과 가사의 연결을 생각하며 불러본다. ▶다음은 중모리 장단에 맞추어 하기 -학생에게 연주를 시켜본다. ▶<창조도섭>은 무엇인가.	▷<춘향 해칼하여라.> 학습지를 받는다. -교과서 부분 읽기 -매우 절박한 심정이 나타난 분위기이다. ▷아니리-학습지표를 보고 선율의 흐름을 따라 부른다. ▷모둠별로 북과 장구를 사용한다. -“선생님 잘 하시네요.” 모두 즐겁게 웃는다. ▷영상 자료를 보고 장단을 쳐 본다. ▷학습지의 가사를	가창 기악 학습	학습지 및 영상자료 사이트를 확인한다.

			-전문가의 소리를 들으며 따라 흉내 내어 불러보자. -녹음된 음악을 감상한다.	보고 따라 장단을 쳐본다. -잘 하는 학생은 시범연주를 해 본다.		
	창작 영역	20″	▶학생들의 <춘향전>을 패러디한 글 소개하기 -희망학생의 글 소개하기 -패러디한 글은 수행평가 자료로 반영한다. ▶글쓰기 지도하기	-발표하기 -노트에 요약 정리하기	발표 및 설명	PPT 자료제시 과제물 점검
정착	내면화 및 단원 정리	10″	▶단원의 마지막 단계로 춘향전 문학의 발전적 계승 방법에 대해 토의하기 -발표하기 태도는 과정 평가한다. -교사는 발표 안을 종합하여 소개한다. -“요즘 여러분에게 익숙한 용어로 ‘벤치마킹’해 보면 어떨까요?” ▶단원 정리 -<춘향전>의 개괄적인 정리를 하며 단원을 마무리한다.	▷모둠별로 발표 -각자 판소리 문학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발표한다. -“저는 <춘향전> 중 <사랑가>를 랩으로 사용한 멋진 가요를 만들고 싶어요.” ▷단원정리, 학습지 노트 정리	모둠별 토의 학습	과제물 확인 모둠원들의 발표와 진지한 토의가 되도록 유도한다.

< 3차시 세부 학습 전개 내용>

1. 도입

1) 전시학습 확인

- 영상자료와 함께 <사랑가>를 부른다. - 칭찬하기

2) 학습목표 제시

- 과제물 제출에 대해 칭찬과 함께 수행평가 반영에 대해 언급한다.

-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2. 전개

1) 이해 영역 - 국어교과서 어사출도 장면에서 암행어사로 돌아온 이 도령이 춘향을 시험하는 대목과 판소리에서 <춘향 해칼하여라> 대목을 살펴본다. 두 부분은 표현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임을 주지시킨다.

2) 감상 과 기악 연주 - <춘향 해칼하여라> 대목을 아니리로 불러보고 전문가의 창조도섭 부르는 부분 감상하기

- 먼저 국어교과서를 읽어본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분은 사또의 생일잔치와 어사 출도 부분으로 <춘향전> 전체 내용 중 글의 절정에 해당한다.

"본관 수청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 아니 들려하고 관전에 포악한 춘향이로소이다." 어사또 분부하시되 "너만 수절한다고 관정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소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마다 명관이로구나. 수의사또 들으시오. 층암절벽 높은 바위 바람 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주 푸른 남기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삐 죽여주오."

- 춘향의 절개가 드러난 부분으로. 여기서 변 사또의 횡포를 상징하는 말과 춘향의 절개를 나타내는 말을 구분해 보도록 한다.

- 판소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판서안

▶ 어사또가 춘향의 절개를 시험해 보는 부분	아니리
▶ 춘향이 본관사또와 수의 어사또가 다름이 없다고 말하는 부분	창조도섭
▶ 춘향이 끝까지 곧은 절개를 지키는 부분	창

- 판소리의 구성 요소인 '아니리'는 판소리 요소 중 가장 문학적 특징을 지닌 부분으로 창으로 부르기에 너무 긴 내용이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 해칼하여라> 아니리 대목으로 진한 글씨 부분은 억양을 올린다.

.☞사이트제시- http://www.sori.jeonbuk.kr/sori/main.jsp

- 아니리 학습지를 나누어 준다.

- 교사가 먼저 읽고 학생들은 따라 부른다.

춘향 해칼**하여라** 예-**이** 춘향 해칼하였오 어사또 분부하시되 춘향이 **듣거라** 네 일개 **천기의** 여식으로 **본관**을 능욕하고 **수청** 아니 드난 것은 죄당만사 **무석** 이려니와 잠시잠간 지내가는 수의 **방 수**도 못들겄느냐 **아 뢰 어 라**

- 창조도섭은 판소리에 나타나는 생소한 용어로 아니리에 나타나는 평상적인 말의 형태에 음의 고저를 넣어 말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하고, 흥겨움을 더해 주며, 점점 창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다.

- 파워포인트를 제시하며 전문가의 노래 감상하기

- 1차시에 배운 중모리 장단을 치며 따라 불러보기 - 창조도섭은 충분히 잘 하기는 어려우며 전문가의 연주를 감상하여 감흥을 충분히 느끼도록 한다.

'춘향 해칼하여라' -창조도섭 악보 : 파워포인트 제시

똑같이 먹은 명관들이요

똑	같	이이	머억	으으	으은	며 어 어 영	관	들이	요		

죽여주오, 죽여주오

죽 여 주 오									죽여	주오	

홍로의 물은 불로 사르라면 어서 사르시고

호 - 옹	로오	물은	불로	오		사르 으	라면	어서 어	사 아 르	시고	

칠척검 드는 칼로

칠척	억	거어	어	어	어	엄	드오		느은	카알	로오

어서 급히 죽여 주시면

어	어서	급히	이 이 이 이	이	이	죽여		주시	면		

혼비혼행 둥둥 떠서

혼	비	혼행				두 옹 옹			두옹	떠어	서어

우리 서방님 찾어갈라요

우리	이	서바	아앙	님을		찾어		갈라	요		

송장임자는 문밖에 섰으니

소	오용	자 아 앙	임	자는		무은	밖	으으	서었	으니	이

어서 급히 죽여 주오

어서	급히		죽 여 주오						△		

- 위 부분의 내용을 소설과 비교해 보면, 소설 <춘향전>에서는 “층암절벽 높은 바위 바람 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죽 푸른 남기 눈이 온들 변하리까”라고 하며 꿋꿋한 절개를 표현했다면 판소리 <춘향가>에서는 “홍로에 있는 불로 태워버리든지 칠척이나 되는 검으로 속히 죽이든지 하면 자신의 혼이 둥둥 떠서 그리운 낭군 곁을 찾아 가겠다”는 표현으로 사랑의 비장함을 나타내고 있다.

- 학생들의 느낌을 들어본다.

- 무대 공연을 통해 직접 관객과 대면하는 판소리는 소설의 표현보다 더욱 과장되고 상황을 더 극적으로 묘사하였다.

3) 창작 영역- 발표 및 설명학습으로 미리 제출한 과제물 중 독특하거나 글감이 좋은 작품 두 개를 선정하여 제시한다.

- 패러디한 글쓰기 소개 44)

<춘향전>의 잔치 풍경과 운봉의 부하 단속 장면에 나타난 대구와 열거법을 활용한 글 소개 ◆ 학급 대청소 - 서기 불러 일지 단속, 반장 불러 봉투 처리, 부반장 불러 걸레 단속, 당번 불러 유리 닦기, 대의원 불러 선풍기 닦기, 총무 불러 도망자 단속, 주번 불러 칠판 닦기, 지각생 불러 걸레 내라, 다른 주번 걸레 빨기, 책상 위에 먼지 제거, 온갖 낙서 사포로 제거, 교실 벽면 세제로 닦기, 게시물은 반듯반듯, 쓰레기통은 정리정돈, 재활용품 분리하기, 교실 먼지 환기하기, 책상 줄은 반듯반듯, 의자는 책상 속에, 교실 창문 꼭꼭 닫기, 주번 불러 커튼 묶기, 상쾌하게 가방 싸고, 종례 후에 귀가하네.

4) 글쓰기 지도 - 글쓰기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며 설명학습

국어과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별도로 가르치기 보다는 그것이 사용되는 상황

44) 교육인적자원부, 국어 (하), 교사용 지도서, p,336.

을 통하여 융합적으로 가르칠 때 더욱 학습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춘향전> 작품을 읽고 판소리 <춘향가>를 함께 부르며, 단순하게 읽거나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읽은 것을 토의하거나 느낀 내용을 글쓰기로 표현해 보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한다. 이것은 학습자가 문학 작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문학 교육 방법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 과제물로 제출한 학생 글을 소개하며 지도한다.

3. 정착 : 내면화 및 단원 정리

1) <춘향전>의 변형된 작품 알아보기 : <춘향전>을 변형한 다양한 작품을 조사한 과제물 발표하기 - 학생은 노트를 확인하며 교사는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제시한다.

<춘향전>은 한국문학의 대표적인 고전으로 이야기 자체의 전개가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티프를 담고 있어서 끊임없이 현대적 재창조의 원천이 되었다. 현대적인 서사적 기법의 발달로 인해 이해조의 <옥중화>, 이광수의 <일성춘향전>, 최인훈의 <춘향뎐>등이 나왔다. 또한 작품 속에 나타나는 춘향의 사랑과 갈등 같은 감정의 보편성을 기반으로 한 모티프들이 부각되어 김영랑의 <춘향>, 박재삼의 <춘향이 마음>, 서정주의 <추천사>와 <춘향유문> 등 서정시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 이러한 다양한 <춘향전>들이 변형되고 있는 작품을 조사하면서 학생들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도록 유도한다.

- "지금까지 소설 <춘향전>과 판소리 <춘향가>의 관계를 비교해 보았는데,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르 중에서 <춘향전>와 관련된 장르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춘향가>는 지금까지 배운 판소리와 소설 이외에도 창극, 영화, 오페라, 뮤지컬, 무용극 등등 여러 장르로 변형되어 창작되는 경우가 많다.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새로운 형태의 공연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교사는 발표나 토의 학습을 정리하여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대한 과정평가로 활용하며 적극적으로 토의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발표 사례 1. - "장래에 <춘향전>을 시대적 감각에 맞추어 시나리오를 만드는 작가를 겸하여 이를 영화로 제작하는 감독이 되고 싶다."

- 발표 사례 2. - "등장인물의 성격을 좀 더 진취적으로 각색하고 최첨단의 영상매체를 결합시킨 세계적인 뮤지컬을 만드는 제작자가 되고 싶다."

2) 단원 정리 - 단원의 학습을 마치며 고전을 통한 국어과 미래교육의 지향점을 찾아본다.

<춘향전>은 오랜 세월을 두고 이루어진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양식으로 설화, 판소리, 소설의 특징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한민족의 전통적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다. 문체는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 운문체와 산문체의 중간 형태로 오늘날 말하듯 글을 쓰는 전자매체의 언어와 유사하다. 춘향과 이 도령의 사랑이라는 주제도 역경을 이겨낸 사랑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허무주의와 패배적 사고가 팽배한 오늘날에 유용한 가치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전통의 창조적 활용 방안에 유의하여 <춘향전>을 지도하도록 한다.

Ⅵ. 결　　론

판소리가 시(詩)와 가(歌), 그리고 무(舞)의 융합을 실현해야 하는 장르라 한다면 판소리 교육은 국어와 음악의 융합적 학습 원리를 활용해야 하는 원리를 적용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무용의 의미를 함축하는 연극성은 국어과목에 포함시킨다는 전제를 달아 위의 논리를 구성한 결과 이 논문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연구는 고등학교 판소리 교육의 학습 방안을 국어과를 중심으로 하여 음악과와 긴밀히 협조하는 융합적 방식에 따라 시도된 것이다. 7차 고등학교 국어, 문학교과서와 음악교과서를 대상으로 위의 방식을 고찰하고 정리한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국어교과서는 판소리 교육이 사설 풀이 위주, 또는 소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음악교과서는 조(調)의 이해와 발성법을 비롯한 소리 교육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어와 음악 교과 양쪽이 다같이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전반적으로 흡족하지 못한 상태의 교육 내용을 보이고 있는 것이 민요와 무가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국어 영역에서 구비문학, 음악 영역에서 민속음악으로 분류되어 교육과 연구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판소리 교육의 방향은 현실적 현장감을 도외시할 수 없다. 새로운 문학 작품과 음악이 대중매체들을 통해 소개되고 그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고 있는 때에, 자칫하면 판소리를 옛날의 해묵은 문학이나 음악으로 여겨 외면하기 쉽다는 점이 우려된다. 현실에 새롭게 태어나는 장르로서의 판소리로 교육하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판소리를 현장에서 융합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협동학습 방안을 찾는 작업이 시급하고도 요긴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판소리에 대한 협동학습 방법으로 최근에 연구된 것들을 모아 그 내용을 분석했다. 특히 국어과의 학습 모형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용하기에 적합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음악과의 협동학습 연구가 빈약한 것은 아니었다. 감상 방식과 이해를 통한 실천 학습 내용들이 많았으므로 이들을 추려내어 검토하였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서 국어와 음악으로 분리되어 있는 내용과 방법들을 어떻게 융합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접근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 융합적 모형의 대상이 되는 판소리 교육 작품은 <춘향전> 또는 <춘향가>로 삼았다. 소설 형식으로는 <춘향전>이요, 노래 형식으로는 <춘향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일단 동일한 대상으로 취급하였다. 이 논문이 국어과 중심 모형이므로 <춘향전>으로 명명하여 융합적 학습 모형을 구상하고 조정한 결과 학습 시간을 전체 3차시로 정했다. 결코 충분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국어 교과에서 <춘향전>이 2차시로 배정된 것에 비하면 그것보다 1차시를 더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된다.

1차시의 융합 학습 목표는, 판소리의 구성 요소와 장단의 기능을 이해하고 판소리 중중모리 장단을 칠 수 있는 것에 두었다. 수업 적용 모형은, 감상을 통한 기악과 이해의 통합 수업으로 정했다. 교사의 시범 연주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작품에 대한 이해를 위해 2차시에 실시할 가창 학습의 동영상 자료를 감상하여 흥미를 가지고 단원 학습에 임하도록 하였다. <춘향전>과 <춘향가>의 배경 설화 및 형성 과정을 알아보고 두 교과의 융합 형태의 수업 진행에 가까이 접근하도록 유도하였다.

2차시의 융합 학습 목표는 두 가지로 정하여, 수업 적용 모형은 감상을 통한 가창과 기악 및 이해 중심의 융합 이론 수업으로 삼았다. 먼저 판소리와 판소리계소설의 관계를 이해하고 소설 <춘향전>의 주제와 사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 우선적 목표를 두었다. <춘향가>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랑가> 대목을 영상자료로 보면서 장단과 함께 하는 가창학습 형태로 단원에 대한 흥미와 미적 체험활동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시간인 3차시의 융합 학습 목표 역시 두 가지를 내세웠다. 첫째, 소설 <춘향전>의 장면과 관련된 판소리 <춘향가> 대목을 아니리로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 2차시에 예고된 <춘향전>을 패러디한 글쓰기 과제물을 발표수업으로 진행하며 판소리와 판소리계소설에서 파생된 여러 장르들을 이해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춘향전>의 변형된 여러 작품을 알아보고 판소리 문학의 발전적 계승 방법에 대해 토의하여 보는 일이 포함되었다. 파생 장르로 영화와 오페라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고 새로운 현대음악 장르에 적용할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수업 적용 모형은, 감상을 통한 가창·기악 수업과 조별 토의 수업이다. 1차시와 유사하게 감상과 가창을 행하지만 토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점을 이룬다. 개인별로 미리 준비한 과제물을 발표하고 토의 학습으로 마감하게 되는 순서를 따랐으며 수업의 모든

과정은 관찰되어 과정평가에 활용되도록 하여 교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수업이 아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진행은 국어와 음악 교사의 공동 지도로 하며 학습지 및 영상자료를 공동으로 제작하고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전공에 따른 심화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도움과 노력이 공동으로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융합적 수업이 준비되고 판소리 장르가 추구하는 융합적 이론을 구현해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융합 교육 방식에 따라 국어와 음악 과목의 특성과 역할을 각각 염두에 두었지만 더욱 새로운 수업 방법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어가야 한다. <춘향전> 뿐만 아니라 다른 판소리 작품들도 이러한 방법의 개발을 기다리고 있고, 또 새로운 영역에서 융합적 방법이 필요한 장르들이 속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상미, 「시조와 봉산탈춤으로 음악극을 만드는 음악 통합 수업 프로그램 개발 : 국사 · 문학과의 내용과 관련지어」,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6.

강윤경, 「고등학교 음악 교과와 국어 교과의 통합 학습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강은수, 「영상매체를 활용한 음악감상 교육 방법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강재홍, 「이본 생성 원리를 활용한 <흥부전> 교수-학습 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고등학교 국어 교사용 지도서(하)』, (주)두산, 2002.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1998.

국립국악원 편, 『명창을 알면 판소리가 보인다』, 국립국악원, 2005.

김수정, 「고전소설 교육에서 예측하며 읽기 : <토끼전> 이본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수중, 『고전소설과 문학정신』, 태학사, 2007.

김인아, 「중등학교 판소리계소설의 수용양상과 교수-학습 지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인영, 「판소리계소설 교육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정일, 「판소리 감상 학습을 위한 수업 모형 연구 : 국어교과서의 판소리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현규, 「포가티(Fogarty)의 계열형 모형에 의한 음악-국어 통합 학습 지도 방안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류정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토끼전> 교수 방안」,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민속음악자료집 제2집, 『음반으로 보는 남원 동편소리의 전통과 세계』, 국립민속국악원, 2002.

박윤지, 「교육 연극적 방법을 활용한 판소리계소설 지도 방안 연구 : <춘향전>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백대웅,『다시보는 판소리』, 도서출판 어울림, 1996.
_____, 「판소리에 있어서 우조, 평조, 계면조」, 『한국음악연구』제8·9집 합병호, 한국국악학회, 1979.
설성경, 『춘향전의 통시적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1994.
_____,『춘향전 역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손민경,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춘향전>의 교육내용과 소규모 학습 방안 연구 : 7차 국어·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일조각, 1998.
유진희, 「통합적 접근에 의한 판소리 '춘향가' 감상의 수업모형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윤광봉, 『개정 한국연희시연구』, 박이정, 1997,
이보형, 「판소리 경드름에 관한 연구」, 『서낭당』 제1집, 한국민속예술연구소, 1971.
_____, 「메나리조」, 『한국음악연구』제2집, 한국국악학회, 1972.
_____, 「판소리와 산조에서 우조와 평조의 개념수용에 관한 고찰」, 『국악원논문집』제10집, 국립국악원, 1998.
이은정, 「음악수업에서 동기유발을 위한 활동 중심 교수-학습 모형개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이혜구·임미선 『한국음악이론』, 민속원, 2007.
이홍수, 『느낌과 통한의 음악 교육』, 세광음악출판사, 1992.
장덕순 외 3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정병욱,『한국의 판소리』, 집문당, 1996.
정병헌, 『판소리와 한국 문화』, 역락, 2002.
_____, 『한국 고전문학의 교육적 성찰』,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3.
조동일 · 김흥규, 『판소리의 이해』, 창작과비평사, 1978.
조동일, 「춘향전 주제의 새로운 고찰」,『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광학술자료사, 1993.
진봉규, 『판소리 -이론과 실제- 』, 수서원, 1995.
최동현, 『판소리 이야기』, 도서출판 작가, 2004.
최상화, 「소리의 예술성과 상품화」, 『판소리 보전과 향유』, 남도문화예술진흥회,

2004,
최혜진,『판소리 대중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전략』, 비교민속학회, 2004.
한만영, 「판소리의 우조」, 『한국음악연구』 제2집, 한국국악학회, 1972.
홍순일, 『판소리 창본의 희극정신과 극적 아이러니』, 박이정, 2003.
황윤영, 「음악 감상의 교육 방법에 대한 문화적 접근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2001.
_____ , 『고등학교 국어(상)』, 2002.
_____ , 『고등학교 국어(하)』, 2002.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고등학교 음악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주), 2003.
강황구 외, 『문학(상), (하)』, 상문출판사, 2002.
구인환 외, 『문학(상), (하)』, 교학사, 2002.
권영민 왜, 『문학(상), (하)』, 지학사, 2002.
김대행 외, 『문학(상), (하)』, 교학사, 2002.
김병국 외, 『문학(상), (하)』, 케이스, 2002.
김상태 외, 『문학(상), (하)』, 도서출판 태성, 2002.
김윤식 외, 『문학(상), (하)』, 도서출판 디딤돌, 2002.
김창원 외, 『문학(상), (하)』, 민중서림, 2002.
박갑수 외, 『문학(상), (하)』, 지학사, 2002.
박경신 외, 『문학(상), (하)』, 금성출판사, 2002.
박호영 외, 『문학(상), (하)』, 형설출판사, 2002.
오세영 외, 『문학(상), (하)』, 대한교과서, 2002.
우한용 외, 『문학(상), (하)』, 두산, 2002.
조남현 외, 『문학(상), (하)』,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2.
최 웅 외, 『문학(상), (하)』, 청문각, 2002.
한계전 외, 『문학(상), (하)』, 블랙박스, 2002.
한철우 외, 『문학(상), (하)』, 문원각, 2002.
홍신선 외, 『문학(상), (하)』, 천재교육, 2002.
고춘선,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세광음악출판사, 2002.
김성수 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 대한교과서(주), 2002.

백병동 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 (주)천재교육, 2002.
윤경미 · 문진 ,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현대음악출판사, 2004.
이강율 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주) 박영사, 2002.
이홍수 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주) 두산, 2003.

인터넷 사이트

http://www.ncktpa.go.kr/ (국립국악원)

http.//chammusic.njoyschool.net (전국 음악교사 모임)

http://www.sori.jeonbuk.kr/ (전라북도 소리)

http://www.domisol.kr/ (최규남 선생님의 도미솔 홈페이지)

http://cngukak.cnei.or.kr/(전라남도 음악교사 모임)

http://music.cein.or.kr/index.html (전라북도 음악교사회)